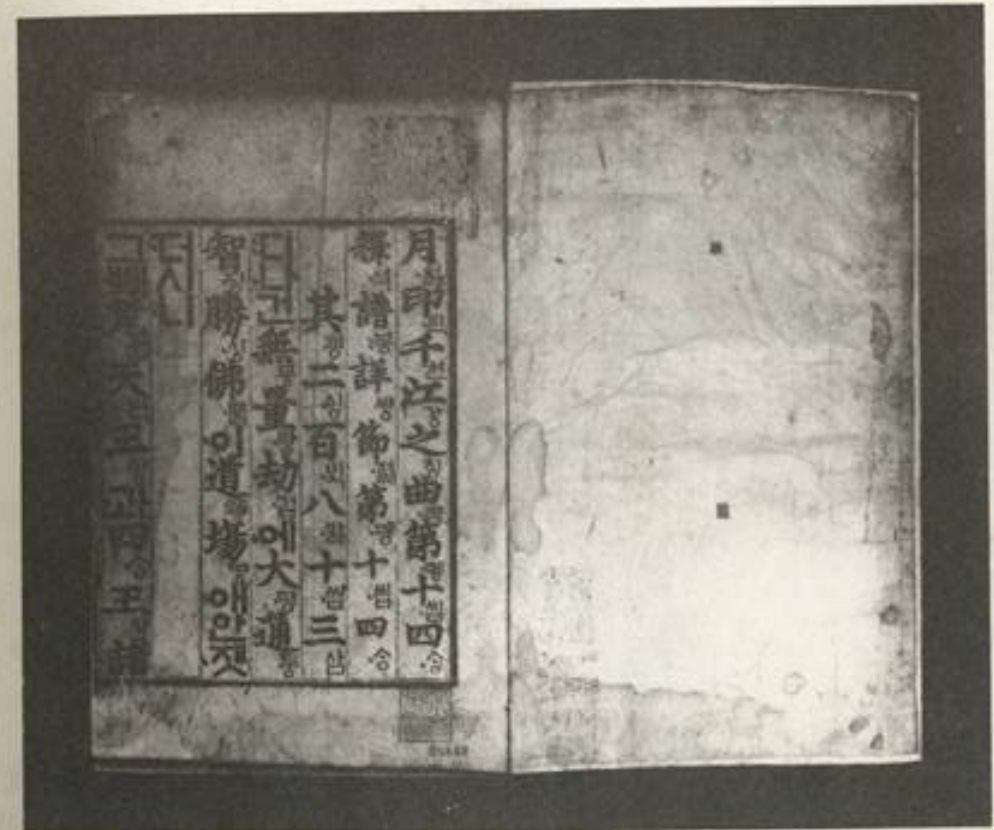




밀알

발행 : 연세대학교 여직원회



86. 4. 1.
94. 9. 4. 1.
032-515-3333
94/2/1
314
4/1

Red scribbles and a signature at the bottom right of the left page.

월보

표지설명

월인석보(月印釋譜)

세조 5년(1459년) 세조가, 세종대왕이 지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본문으로, 세조 자신이 지은 석보상절(釋譜詳節)을 설명부분으로 하여 합쳐 펴낸 책이다. 부처님의 공덕을 칭송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 초기 불교문화의 정수로 평가되며 동시에 조선 초기 불교문화의 정수로 평가되며 동시에 조선 초기 산문문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목판본으로, 총 24권이 출간된 것으로 추정하나 모두 현존하지 않는다. 그 중 권 13과 권 14가 우리대학교 소장본이다. 보물 745호.

차례

1	연세에 등지를 쓴 둔재이야기 / 한상완
3	밀알그루터 ● 다가 온 가을의 길목에서 / 안일봉
4	연세를 떠나며 / 홍옥자
6	나의 취미 하나 ● 우리 소리·우리 가락 / 유진한
9	두울 ●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 최 란
11	세엿 ● 토요일산행 / 김진숙
15	네엿 ● 세엿, 꾸준히 나를 비우는..... / 박성원
18	나의 외도기 / 김애숙
19	의학칼럼 ● 감기 / 송문영
21	육아일기 하나 ● 잃어버린 부성애를 찾아서 / 차기섭
25	두울 ● 나는 '왕비'로소이다 / 양현주
27	지상강의 - 영시감상 / 최종철
	특집 IMF 파도넘기
31	● IMF 앞뜰경제 10계명
34	● IMF 시대에 빠지기 쉬운 함정
36	● 자동차보험 절약 요령
40	법률상담 / 이상윤
41	취미교실 설문지 분석
45	상황별 동화시리즈 하나 ● 토박과 도토리
46	두울 ● 어리석은 개구리
47	활용매 붙시다 ● 셀러드와 샌드위치 만들기
49	여성은 왜 일을 하는가 / 전여옥
50	컴퓨터를 배우시다 ● 사무실에서의 전산자원 공유 / 조수정
52	가볼만한 곳 ● 눈이와도 좋고 비가와도 / 강학 석모도
56	한 학기 이렇게 보냈습니다
57	알림판

연세에 동지를 든 돈재 이야기

한 상 완 (문헌정보학과 교수)

우리 캠퍼스 북문 쪽에 위치한 무악학사가 들어서기 훨씬 전인 1970년대에 연세 동산에는 기숙사가 한 군데 있었다. 그 곳이 연합신학대학원 건물 2층이었다. 물론 지금의 재단건물인 핀슨관(Pinson Hall)이 1922년에 완성되어 기숙사로 사용되었고 이 곳에 기숙하던 우리의 영원한 민족시인 윤동주 선배가 나라 잃은 청담함과 청년으로의 방황과 사색을 가다듬어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를 썼던 곳이기도 하다. 그 핀슨관 앞 숲에 그의 시비가 서 있음이 우연이랄 수 있겠는가.

나는 연신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후 1년간 그 연신원 기숙사 2층 한 방에서 지금의 신과대학 교회사 교수이신 이양호 학생과 함께 기숙한 일이 있었다. 당시 중앙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나는 원장이시던 한태동 박사의 허락으로 학부학생이던 이교수와 한방을 쓰게 되었고, 그 후 10수년이 지나 서로 교수로 모교에 함께 봉직하게 되었으니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나 보다.

나는 모교 연세에서 순수한 학생으로만 만 15년을 다닌 터이었으니 아마도 우리 연세동문 중에 나만큼 연세캠퍼스에 오랫동안 학생 신분을 지니고 있었던 이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15년이면 대학 학부를 거의 4번 다닐 수 있는 길고도 긴 세월이 아니라. 나는 정말 무던히도 둔한 사람이었기에 남들은 4년만 다녀도 너끈히 연세동문 자격을 갖는데 네 배나 더 웅크거리면서 모교 교정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으니 어찌 돈재라 자칭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고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연세를 지극히 사랑하여 연세에 동지를 들고 15년간 배우고 이리저리 사회에 나가 활동하다가 다시 모교의 부름을 받아 교수노릇을 시작한지 벌써 8년이나 되었다는 점이다.

15년의 계산은 이렇다. 61학번으로 입학하여 졸업까지 걸린 세월 4년, 연신원 재학 3년,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6년.

그 15년 중 연신원 기숙사 시절과, 그 후 모교 교수로 임명된 91년에 가족과 떨어져 우선 외국인 교수 숙소로 쓰던 현재 헐리고 없는 상남경영원 자리의 유서 깊은 돌집에서 8개월을 살던 연세 동산에서의 기숙은 나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아롱답고도 깊은 의미가 있었던 기간이었다. 스물 네 시간을 연세동산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나는 그 때 거의 매일매일 가슴에 새기며 생활했던 추억을 지니고 있다.

5월 중순 연신원 2층에서 창문을 열고 있노라면 꼬꼬리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취파람을 즐겨 부는 터였는데 꼬꼬리 소리도 거의 비슷하게 흥내낼 수 있게 되었다. 꼬꼬리가 노래하면 나도 따라 불렀다. 그러노라면 멀리 떨어진 나무에서 노래하고 있던 녀석은 차츰차츰 나의 2층 방 창가의 나뭇가지까지 옮겨와 서로 화답하며 노래했던 정경을 어떻게 쉬이 잊을 수가 있겠는가.

연세를 지극히 옹호하여 떠나지 못하고 동지를 틀어 15년, 그리고 이제 8년간의 교수생활에서 나는 천재는 되지 못하였으되 돈재로서의 특권이랄까 기쁨을 연세가 보상해 준 것이 아닌가 회상하곤 한다. 연세에서 높은 뜻을 지니신 스승을 만났고 참다운 벗들을 사귀었으며, 연세가족을 만났으며, 무엇보다도 내 삶의 대들보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의 만남은 필연이리라. 나는 나의 남은 생애도 연세에서 연세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수로서, 동료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연세를 섬기며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리라 조용히 다짐해 본다♣



명알 그루터기

다가 온 가을의 길목에서

안 익 봉 (예산조정과 주임)

우리들 마음에 담겨진 아픈
어느 날의 상처
다가 온 가을의 情趣로
깨끗이 씻을 수 있다면
그래서 가을의 마음들은
더욱 아늑다워지겠지

나는 원한다
보여 길 落葉등은 荒涼한 心등이
慰勞 받게 되길....

나는 늦 가을을 사랑한다
加平 어느 한적한 곳에 가고 싶다
나뭇국어져 있는 落葉을 생각한다
'想念의 바다'를 이룬 낙엽위에 턱씩 주저 않는다

虛空을 가르는 담배 煙氣조차 아늑다우너....

동아 오는 얼굴에 하얀 미소를
간직하고 싶어
이 마음의 빈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러나 나는 물려 갈 가을까지도 사랑한다

연세를 떠나며

홍 옥 자 (중앙도서관 사서과장)

이 가을 누렇게 물든 교정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는 남다른 감회가 깊습니다. 백 양로를 걸으며, 우수수 발앞에서 흩어지는 낙엽을 밟으며, 가슴 한편에 아스라한 아 품이 서립니다. 매일매일 무심히 드나들던 사계절 아름다운 이 교정을 보는 것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청운의 뜻을 품고 배움의 전당으로 연세를 찾아와 삶의 터전으로 이어 지나온 세월이 어언 사십년, 반평생을 넘게 연세와 더불어 지내오던 시간이 이제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그리움에 떨게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뾰족한 청송대 주변 나무 숲속에 과묵히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 번번이 강의시간 빼먹던 일, 모두가 다 애국지사되어 날아오는 총알을 겁내지 않았던 사일구의 정열, 지금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나신 무조건 존경하고 싶었던 백발이 성성한 노교수님들, 생각나는 것마다 가슴 뭉클하게 합니다.

학업을 끝내고 연세가 바로 내 일터로 되었을 때 어렵기만 했던 직원 선생님들은 한 가족처럼 친절한 분들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학교 행사에서나, 직원 야유회에서나, 재미있었던 다른 대학 직원간의 운동시합에서나, 이런저런 자리마다 직원들이 모두 모여 서로 마음을 나누며 연세인의 하나됨을 다짐했었습니다. 연신원의 작은 예배실, 이곳 저곳 찾아다니며 찬송하고 사랑을 배웠던 성가대 모임, 이런 것은 연세였기에 지닐 수 있었던 좋은 추억입니다. 그러나 가슴 아팠던 일도 떠오릅니다. 우리의 암울했던 70년대, 80년대, 아름다운 연세의 교정은 최루탄 가스로 뒤덮이고 학생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군대가 진을 치고 학생들은 쇠망치를 들고 교정에서 뛰고, 그 무엇보다도 건디기 힘들었던 것은 도서관으로 쫓겨온 학생을 경찰이 뒤쫓아와 팔을 뒤로 비틀어 쥐고 무지막지하게 끌어내어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슴아픈 한열이, 수석이....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겠지요.

이제 떠나려는 마당에 서서 조용히 나를 돌아봅니다.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 했던 연세에서 나는 무엇을 했을까? 부끄러운 마음 뿐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연을 맺은 우리 선배, 동료분들께 사무실

이 다르다는 이유로, 껌스럽다는 이유로 가까이 모시지 못했습니다. 많지도 않은 우리 여직원끼리도 바쁘다,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서로 다정히 지내지 못했습니다. 후배동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일이 연세 학생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었는지 자문해 봅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말해 봅니다.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지 않았나고!

청송대 주변으로, 노천장당 뒷길로, 무수히 많은 나의 사랑 물은 발자취를 남긴 것을 위로로 삼습니다. 도서관 서고에 줄줄이 늘어선 많은 책 갈피갈피마다 정성어린 나의 손길을 흔적으로 남긴 것을 위안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위안은 내 부족했던 것, 내 아쉬웠던 것을 더 훌륭히 해 내줄 우리 똑똑한 후배님들을 뒤에 남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백양로가 은행로가 되고 숲은 빌딩이 되고 연세가 세월따라 변해오는 동안 나도 따라 함께 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연세는 계속해서 변해 갈 겁니다. 나는 이제 연세와 함께하는 시간의 끝자락에 서서 한없는 정을 남긴 채 조용히 안녕을 고합니다.

안녕, 연세여 영원히.....

아하!! 40대에 적합한 운동

몸이 이곳저곳 뼈걱거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40대에 들어서면 몸이 예전같지 않은 게 느껴진다. 이 시기에는 중거리 자원이 아닌 치로 중 위한 운동이 필요해지는 시기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으면 운동을 하기전에 운동부하검사를 받아야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으며, 담배를 피우거나 비만일 경우도 검사를 받는게 좋다. 40대가 넘은 여성은 두 볼이 동시에 지면에서 떨어지는 운동은 피해야 하는데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부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골프, 수영, 계단오르기 등이 적당하다. (30대는 41페이지를 보세요)

나의 취미 하나

우리 소리 • 우리 가락

유진한 (교무과 주임)

나는 올 봄에 오래 전부터 그토록 해보고 싶었던 것을 작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우리 소리를 배우는 것이었다. 처음 소리선생에게 개인사사를 받으면서 느낀 감동은 아주 강렬한 것이었다. 지금 까지 트롯류의 대중가요를 좋아했던 나는 우리소리의 세계에 접한 순간 속된 말로 그냥 껌했다. 마음속으로 젊은 소리 선생한테 무릎을 꿇고 동조계의 계보를 잇는 선생의 너름새와 입모양을 맥없이 쳐다만 보았다. 그로부터 지금 까지, 여전히 소리는 나를 이끌어 잡아당기고 있다. 이것이 소리의 힘인가 보다. 소리의 힘은 일화에도 나타난다.

광활한 중국대륙을 놓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한나라 유방과 토나라 항우. 유방은 역발산기계의 힘을 가진 항우를 이기기에는 자신의 힘이 못 미침을 알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노랫소리이다. 휘영청 달은 밝고 찬이슬은 어께 위에 내려앉아 그러잡아도 끌도 없는 전쟁속에서 가족생각이 간절하던 토나라 군사들은 그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고요한 달빛을 타고 은은히 퍼지는 토나라 사람들의 노랫소리. 그 소리에는 가족을 그리는 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늙은 부모는 널 기다린다. 오늘도 눈시울 적시며...” 항우의 병사는 이 노랫소리에 모두 최면이 걸렸다.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병장기를 내던지고 노랫소리가 나는 곳으로 뿔뿔히 찢어진 사람이 되어 걸어가는 군사들. 하늘도 잡아 흔든다는 항우의 힘도, 항수어린 노랫소리에 마비되어 자신의 걸을 떠나는 군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얼마전 T.V에서 우리소리를 방영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다. 소리꾼은 소리를 하고 입순 카메라는 어느 노인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노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마도 저승길에는 부귀공명과 재물에 대한 애착, 이승의 모든 애착이 부질없음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었는지, 아니면 백발가의 한 대목인

“어제 청춘 자랑하더니 오늘 백발 한심하다. 이팔청춘 사람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너희들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젊진 못하리라. 원수백발 돌아드니 안 어둠던 눈 어둡고, 거울같이 밝던 귀가 암암절벽 안 들리네. 도화같이 곱던 얼굴 검버섯은 웬말이며 삼단같이 검은 머리 눈이 온 듯 희어지고, 송죽같이 곧던 허리가 구절죽장 굽어졌네. 한 발짝만 움직여도 턱 밑에가 숨이 차고, 고개에다 힘을 주어도 체머리는 흔들흔들, 어느 누구 한말 없이 눈물 콧물 절로나니 자손들도 멀어지고 친구 벗도 멀어지네.....”

오장육부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꾼의 처절한 소리를 들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늙어지고 병들어 가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노인은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위 소리 사설에서 보듯이 우리소리를 들어보면 모두가 한 편의 서사시요, 뛰어난 소설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사설 내용은 시대적 변천에 따라 보태지고 멀어지는 반복 속에 현존되어 왔지만 궁핍하고 모질게 살아온 우리 민중의 정서에 녹아내려 이렇게 쉬운 소리로 삶의 거짓없는 소리를 지어온 것이다.

민중의 생활고와 좌절된 꿈과 욕망, 그리고 소망들은 풀리지 않고 웅어리진 채 가슴에 남고 소리에 남는다. 이것은 곧 한의 정서로 지핀다. 그러나 한도 힘에 겨우면 흥으로 되살아나고 흥도 한도 넘어서는 곳에 신명이 있기 마련이다.

내가 처음 소리터에서 배운 것은 민요 “진도 아리랑”이었다. 영화 서편제에서 산 자락 밑 넓은 들판을 배경으로 돌담 쌓인 삼갈래 길에서 소리선생, 제자, 고수 세 사람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소리하듯 점점 흥에 취해 멍실멍실 춤을 추며 부른 노래가 바로 진도 아리랑이다.

그 다음으로 배운 것이 늙고 죽는 것을 춘하추동 사시절에 비유한 단가 “사철가” 심청가 한 대목인 “도화동아”였다.

소리는 민요, 단가, 판소리로 되어 있다. 판소리는 12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자주 들을 수 있는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 등이 그것이다.

모든 소리는 대부분 12마당 안에서 이루어진다. 가끔 매스컴에서 심청가 완창이다, 춘향가 완창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를 완창하려면 장시간 소리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마당 사설내용이 웬만한 장편소설 분량만큼 되기 때문이다.

판소리의 특성은 소리를 소리꾼 혼자서 부르는 것 같으나 상대는 바로 관객이라는 것이다. 관객은 구경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 얼썬다, 아먼 그렇지”등의 추임새라는 응답으로 상대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리마당에서의 소리는 소리꾼의 것이 아니라 관중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세련된 소리꾼을 통해서 관중들이 듣고 있다는 말이 된다. 민중의식은 이런에서 높아지게 되고 관중은 자기들의 한을 소리마당에서 풀 수가 있는 것이다. 판소리 마당의 세 요소를 소리꾼, 고수, 관중의 세 가지로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역색과 주요 성음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소리계에는 동편계, 서편계, 중고계로 나뉘어져있다. 섬진강을 기준으로 동쪽지역 운봉, 구례, 순창 등지를 동편이라 하고 서쪽지역 광주, 나주, 보성등지를 서편이라 하고 경기, 충청지역을 중고계라 한다.

동편계와 서편계의 특징은, 가령 슬픈 대목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서편에서는 애원성을 써 구슬프고 감미롭게 내는데 비해, 동편에서는 황소가 우는 소리와 같이 중후하게 내어 처절하게 묘사하는 차이가 있다. 그밖에 강산계, 달령계, 동토계, 경두름계 등 많은 소리계가 있다. 각 소리계에는 표준으로 삼는 법계가 있다. 동편계는 송흥록 법계를 표준으로 하며, 서편계는 박유진 법계를 표준으로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우리 일상 용어에서 “계대로 해”라는 말이 있다. 소리경험이 많은 소리꾼들은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바로 무슨 계(계)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계(계)대로 해”란 말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내가 소리를 배우면서 달라진 것은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사설내용이 대체적으로 욕설과, 상소리, 한탄, 익살, 해학, 세태풍자 등으로 되어있는 소리를 부르자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세상살이를 웃고 넘길 수 있으며 늙고 죽어지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당연한 이치이자 순리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옛날 양반들이 하는 소리는 책읽는 소리처럼 밋밋하고 재미없지만 배고픔을 잊기 위해 막걸리 한잔을 들이키고 어쩔 수 없이 토해냈던 상것들의 처절한 소리. 수준 높은 우리 소리가 이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 그저 놀랍고 조상들이 존경스러울 뿐이다.

나는 소리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혼자 피를 토하듯 소리부르다가 신명이 나서 내 소리에 흥에 취해 가갈거리고 웃다가 금새 눈물이 찼찼 흐르는 그런 소리가 언제쯤이면 나올까.

늦게 시작했지만 어디 한번 칠십 명창 되어 볼까나. 어썬썬.

나의 취미 두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최 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그린다는 것은 나를 표현하는 한 방식이다.

내가 그림판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딘 것은 작년 여름부터다. 취미로만 생각하고 막연히 곁에 두고 더러는 잊기도 하며 살아갔었는데, 가장 힘들 때 내게 다시 힘으로 다가온 것이 그림 그리는 일이다. 짧은 기간 동안 두 번의 국외 전시와 국내 전시로는 세 번째 그룹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웅직한 공모전이 있으면 관심도 갖고 출품도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미대를 나온 사람들과 달리, 취미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인사동 대열에 감히 발을 내 딛은 것이다. 아직 일년에 두 세 번의 그룹전시와 공모전에 그림을 내고 심사를 받고 하는 처지이지만, 몇 년 후쯤엔 개인전을 열 수도 있으리라 꿈꾼다. 그 때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건 낼 수 있는 베풀도 생기리라 나 자신에게 기대하고 있다.

내게 있어서 그림은 솔직하다.

겉멋으로, 미숙한 대로, 성의 없이 그려내면 그것이 어지없이 그대로 보여진다. 그래서 점점 함부로 그린다는 말을 할 수도 그럴수도 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 그림이란 놈은 어렸을 때부터 내 뒤에 꼭 붙어 다녔던 것 같다. 살아가는데 바빠서 오래도록 잊고 지낼 때도 차도 그 놈은 늘상 거기 서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작년 여름쯤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실의에 잠겨 있었던 적이 있었다. 힘없이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다 보았을 때, '어서 와요!' 하고 반갑게 나를 받아들일 기세를 갖추고 웃고 서 있던 놈이 바로 그림이다. 고맙게도. 그림과 나와의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낫다고 말한다면 우습다고들 할까? 그렇게 무념무상으로 나를 지켜주고 내 곁에 있어주는 고마운 놈.

얼마전 함께 그림을 그리는 언 살이 다 되어 가는 그림동료 소식을 들었다. 이제 손자를 볼 나이에 들어가셨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그림을 그렸었는데, 어느 날부터

인가 보이시질 않아서 그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며칠 후에 다시 나오시겠지 했는데, 뜻밖에 소식이 들려왔다. 천정 어머니를 여의고 마음도 아프고 힘이 든 상태에서 갑자기 시력이 약해졌다고 한다.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그렇게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고 했었는데,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사한 일인지. 그 후로 몸이 좀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림을 게을리 하는 것에 자책을 느끼곤 한다.

지난달로 학교 생활 13년을 넘겼다. 20년도 넘게 근무한 대 선배들에게 무색한 말이지만, 정말 오래 근무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볼 때 영락없이 빠져드는 스스로의 정체성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내게 힘을 주고 활력을 주는 한 가지는 아직도 그림을 그린다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 듯 하다. 일상이 그렇게 힘든데 그림은 뭐 하러 그리고 있냐고 하지만, 그림 그리는 작업이 내게는 휴식이고 행복이다. 그 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거나,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 몸이 곤해 지더라도 하얀 지면이 원하는 색깔들로 채워져 가고 마지막에 붓을 놓는 순간 느껴지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어떤 친구는 내가 그림을 그리며 혼자 사는 것도 좋겠다고 한다. 그림 친구 하나 있는 것도 멋진 일 아니냐고 한다. 그건 그 친구의 욕심이 아닐까. 내가 예인보다 남편보다 더 좋은 그림이라고 말할 만큼 '그림 쫓'이 되는 날이 과연 올까. 내 스스로도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좀 더 명확하게 살아가고 싶을 뿐인데, 그게 어렵다.◆



나의 취미 세엿

토요 산행

김 전 숙 (비서실 비서관장)

언제부터인가 나는 토요일 오후에는 산을 찾는다. 그리고 늘 토요일 오후를 기다린다. 간혹 주위에서 직장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는 질문을 해 온다. 별로 활달하게 나대는 성향도 아니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 다니지도 않는 나의 생활이 꽤나 답답해 보이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예전에는 음악을 즐겨 들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디스크를 올려놓고 볼륨을 높게 올려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지며 피곤이 풀리고 나름대로 행복했다. 고전음악을 즐겨 들었다. 독주곡보다는 교향악단의 연주를 선호했었다. 하지만 음악은 장르 구분없이 다 좋아한다. 동요에서부터 세미클래식, 클래식, 국악, 우리가요, 가곡, 외국가요 등 전부를 좋아한다. 그래서 음악회도 꽤 자주 다녔다.

그런데 십여년전 직원등산회에 가입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다니다 산에 매료되었고 이제는 매주 한 번씩 산행을 해야 한 주일의 피로가 풀리는 감이 든다. 예전에는 지방에 있는 산도 다니 보았지만, 차가 많아지고 교통문제가 만만치 않아 요즈음은 주로 북한산을 오르곤 한다. 도심에서 멀리 가지 않으니 시간 많이 뺏기지 않고, 돈도 많이 안들고, 그리고 운동량이 충분한 것이 바로 등산인 듯하다. 토요일격주휴무, 방학기간중 오전근무, 년 22일의 휴가 등 근무여건이 매우 좋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지만 그 모든 혜택을 별로 누려 보지 못한 터에 나름대로 시간을 조개 활용하려고 생각한 것이 토요일 12시 이후의 오후시간이다. 하지만 토요일 오후 시간 또한 만만치가 않다. 학교에는 심심지 않게 토요일마다 행사가 이어지고, 또 예기치 않았던 일의 발생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가게된다 하더라도 늘 쫓기듯 허둥거리며 사무실을 나서곤 한다.

오늘 1998년 6월 13일, 토요일 12시 5분 사무실 문을 잠그려는데 전화 벨이 울린다. 받을까 말까 갈등하며 수화기를 들었는데 과천에서 병원 편의를 부탁하는 전화

였다. 급히 병원에 전화하여 월요일 오전에 진료 약속을 받아 부탁한 이에게 통보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세명의 일행은 학교 북문 뒷편에 있는 중국집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구파발 쪽으로 향했다. 오늘의 등산코스는 인수봉 옆에 있는 숨은벽이다. 비가 많이 오는 토요일 오후라 교통체증이 심하다. 북한산성 입구를 지나 13시 20분 등산로 입구인 밤골에 도착하였다.

오늘부터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되고 서울은 18일경에 장마가 시작된다 하는데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오후 늦게 개인다는 예보였다. 그래도 오전에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개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었건만 여전히 주룩주룩 비가 내린다. 무더운 계절이지만 기온이 낮고 바람이 불어 아래, 위 모두 긴 옷을 입고, 우의 접퍼에 판초까지 준비하고, 물병 채우고, 방울토마토, 오렌지, 참외, 비스킷을 간식으로 준비하였다.

등산로 입구에서 판초를 걸칠까 하다 조금 거추장거릴 것 같아 접퍼를 입고 우산을 쓰고 가는데 끈적끈적 푹푹한 밤꽃 향기가 진동한다. 동네 이름에 걸맞게 길 양옆 밤나무에 하얀 밤꽃이 흐드러지게 늘어서 있다. 매표소에 이르니 커다란 붉은 벚술의 수탉이 “꼬꼬덕” 인사를 한다. 토종닭이란다. 물론 벚술이 작은 암탉도 양종맞은 모습으로 어울려 있다. 몇 번 온 길이지만 올 때마다 마음이 설레인다. 숲속에 난 작은 오솔길,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다. 계곡을 따라 오르며, 그간 비가 오지 않아 수량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작은 소의 푸르른 연옥색 맑은 물에 탄성이 절로 나오고 또 조금을 올라가니 물소리 요란한 작은 폭포에 이르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반갑다. 매일 오후 4시 30분 연세교육방송국에서 내보내는 방송 시그널로 기억이 된다. 물에 젖은 바위를 조심스럽게 오르내리는데 수풀 계곡 길은 잘 분간이 안되어 여간해서는 길을 잃기가 심상이다.

비가 계속 오는 터에 50여분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숨은벽 코스의 4분의 3 이상을 오르느라 겉옷, 속옷 흠뻑 적시고,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에 안경은 별 도움이 안되어 아예 안경을 벗어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 버렸다. 우산도 거추장스러워 배낭 속에 넣어 버리고 잠깐 쉬어 가자고 제안했다. 방울토마토로 목을 축겼다. 모처럼 아주 오랫동안 맛있게 먹은 중국 음식이 많이 맵고 짭던 것 같다. 갈증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심해 물까지 마셨다. 5분간 쉬고 또 올라가다 보니 백운대 쪽으로 굽

은 밧줄에 걸린 안내문에는 자연휴식년제를 시행 중이니 우회하라고 적혀 있다. 왼쪽으로 돌조각, 바위가 어우러진 비탈길을 힘겹게 올라 숨은 벽에 다다랐다. 겨울에도 왔었고, 이른봄에도 왔었고, 가을에도 왔었고, 작년에는 여름에도 왔었다. 올 때마다 바람이 참으로 많이 부는 곳이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오늘 바람은 유난히 더 세차다. 바위 능선에 오르니 날아갈 듯 바람이 정말 세차다.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혹간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얼마전 바람이 몹시 불던 날 북한산 보현봉에서 추락사고가 있었다는 기사를 읽은 일이 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산 정상에 서고 보니 너무너무 좋다. 힘껏 소리쳐 보고 사위를 둘러보니 장관이다. 규모는 작지만 설악산의 공룡능선과 흡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었다.

염초봉, 원효봉, 만물상, 백운대, 인수봉 등의 우람한 연봉들이 너무도 잘 생기고, 숲을 이룬 나무마다의 잎새 하나 하나 빗물에 씻긴 싱그러운 녹색의 푸른 숲은 얼마나 깨끗하고 신선한지, 그 아름다움, 또 간간히 흰 산목련도 조화롭게 눈에 띄이니 표현할 길 없이 좋은 풍경이다. 이 위대하고 장엄한 자연 앞에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내 자신이 한없이 작고 무력하다는 비애로움에 가슴이 저리다. 그토록 힘에 겹게 흠뻑 땀을 흘리고 산 정상에 서면 그 기분을 어찌 표현하겠는가. 그저 좋다는 말뿐. 감히 이 작은 몸뚱아리로 거대한 이 산을 끌어안고 싶은 부질없는 마음은 어인 일인지.

사위가 탁 트이고 모든 것이 내 발아래 있다. 저 아래 시끌벅적한 삶의 소리를 잠시 잊을 수가 있다. 신경 쓸 거리를 모두 내던지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싱그러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산, 나무, 풀, 바위, 돌 등등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셈일 게다. 꺾이어도 소리하지 않는 나무, 꺾으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 한없는 포용을 산에서 배운다. 한없는 배움을 나는 산에서 배운다.

너른 바위에서 바람을 피해 한 켠에 앉아 오렌지를 나눠 먹으며 상념에 잠긴다. 눈물겹도록 장엄하고 아름다운 산세에 감탄하며 행복하다. 맞은편 태극기가 펄럭이는 백운대에 작은 움적임이 보이고 어렵게 한 사람이 오른다. 곡예사 처럼.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따라 오른다. 비오고 바람부는 곳은 날씨에도 정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산을 오르고 바위를 타며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즐

거워한다. 오늘 우리는 산을 오르는 길에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세찬 바람 때문에 바위 능선으로 하산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으로 바위 밑 좁은 우회도로로 바위쪽에 바짝 붙어 조심스럽게 내려가는데 또 철책이 앞을 가로막는다. 초록색 철책에 걸린 안내문에는 이 길 또한 자연휴식년에 들어간 길이니 불법 진입 시엔 과태료가 100만원이란다. 그런데 그 튼튼한 철책은 이미 여러 개가 넘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넘나든 흔적이 역력하다. 우리 일행 또한 아는 길이 그 길뿐이었고 비도 오는 터라 도리없이 그 길로 들어섰다. 봄에 흐드러지게 꽃피웠을 진달래, 철쭉의 싱그러운 잎들에 재이며 내려오는데 만만한 길은 아니다. 비오는 날의 산길에서는 흙도 새롭고, 돌도 새롭고, 나뭇잎도 새롭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 비는 하늘에서 고루고루 내렸으련만 어느 부분은 전혀 비가 오지 않은 것처럼 흙이 보송보송하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은 질척거리기도 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오묘함에 경탄하며 계곡에 다다르니 나무숲에 숨어 살포시 수줍게 피어있는 주황색 나리꽃의 자태가 상큼하다. 벌써 5, 6년 전인가 지리산 세석에서 임결령으로 가던 중 안부에서 만났던 나리꽃 군락이 생각이 난다. 그 지루하고 힘든 여름 장기 산행에서 그 높은 산 위에 무리지어 피어있던 나리꽃 군락은 얼마나 신선하고 아름다웠는지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 같았었다.

계곡에서 노란 참외 한 개를 깎아 먹고는 흐르는 물에 손도 씻으며 오늘 산행에 나는 너무 황홀해하며 다시 폭포와 작은 소를 지나 산행 기점까지 이르렀는데, 오늘 우리의 산행 시간은 2시간 40여분이다. 맑고 무덥고, 뜨거운 날이었으면 3시간 반 내지 4시간은 족히 걸릴 그런 산행을 우리는 날씨 탓에 상당히 서둘렀었다. 너무 고맙다. 또 이렇게 잘 다녀왔으니. 기분이 몹시 상쾌하다.

귀가 길에 북문쪽에 있는 배란다라는 찻집에서 커피와 쿠키로 오늘 산행을 마무리한다. 비 내리는 착 가라앉은 날씨에 구수한 커피향과 너무도 잘 어우러지는 음악이 내 마음을 저리게 한다. 러시아 태생의 첼리스트 Mischa Maisky가 연주하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율에 난 또 눈물이 시리다. 오늘 비오는, 바람 부는 곳은 날씨였지만 나는 정말 황홀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고맙다. 함께 해준 동료들이 있어서 말이다. 또 토요일 오후가 기다려진다.②

나의 취미 네댓

서예, 꾸준히 나를 비우는 겸손한 작업

박성원 (박물관)

몇해 전, 한 서예작품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마음이 움직였던 적이 있었다. 찜찜한 감동으로 여칠을 그 전시장을 맴돌며 가슴 졸였었다. 조선시대 학자 윤순(尹淳)의 글씨였다. 그 작품은 크지도 않았을 뿐더러 격정을 담은 것도 아닌 잔잔한 행초서첩이었다. 글씨들은 피가 통하듯 자연스럽게 흘러 행(行)을 이루었다. 여백과 글씨가 이루는 아름다운 전체공간, 내용을 담고 있는 형상과 의미의 조화. 내가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때의 감동은 내 마음에 떠나지 않고 자리잡았다. 내가 먹향기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그때의 경험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화선지 전지를 열 장째 접고 있다. 전지 한 장 당 50자의 <석고문(石鼓文)> 글씨를 쓰기 위해 공간을 만들고 있다. 약 500자 가까운 이 글씨를 위한 신성한 종이 접기 의식(儀式)을 한다. 신경이 쓰인다. 정성껏 잘 접으면 글씨도 정성껏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허나 쉽지 않다. 열 장 모두 천차만별이다. 여잡아 나는 다음 서체인 예서(隸書)로 진입하게 된다. 지금 쓰고 있는 전서(篆書)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부님 정상옥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배운 <석고문>을 모두 옮겨 써 봄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전서를 정리해 보게 하신다. 내가 화선지 전지를 고심하며 접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내가 우리학교 서예회에 적을 둔 지는 좀 되었지만, 계속 붓을 잡기엔 상황이 여러가지로 여의치 않았다. 다시 붓을 잡게 된 것은 같이 글씨를 쓰는 여러 선배님들이 오가며 '왜 요새 글씨를 안 써? 글씨 좀 써' 하는 한마디 말씀들도 있었지만, 우리 서예회 회장님의 권유와 충고가 컸다. 내게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자고 권하는 것, 그리고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당시에는 몰랐다.

나는 다시 신입생이 되어 붓을 잡았다. 붓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붓을 잡아본 이력만 가지고 따진다면 나는 가히 대가(大家)급(?)이다. 그러나 쓰다 안쓰다를 반복하며 붓을 오랫동안 놓고 있었다면 그것은 백지 상태와 똑같다는 것은 그간의 경험으로 내가 얻은 진리이다. 서실(書室)에 복귀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서예회 회원전에 낼 작품을 준비하라는 '숨'이 떨어졌다. 전 회원 모두, 이렇게 되니 문제가 심각해졌다. 내가 내 수준을 아는데, 무얼 어떻게 보여 준단 말인가. 나의 글씨 못쓰름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순간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지막까지 안내겠다고 해서 회장님 속을 어지간히 썩였다. 결국 내 작품은 전시장에 암전히 걸렸으며, 도록에도 실렸다. 내 글씨는 솜씨에 비해 '사진발(?)'이 좋았다.

누구보다 잘 썼고, 또는 누구보다는 못쓰고, 어느 틈에 잘 쓰는 것만 보이려고 아등바등거리는 집착덩어리가 되었을까. 잘 쓰던 못쓰던 그것은 내 모습을 비춘 것이다. 그 사이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나 자신에게, 같이 공부하는 동학 여러분에게, 그리고 글씨에 관심을 가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간. 그것이 이번 전시회였다. 서예를 다시 시작한 것은 그것이 좋아서였는데, 어느 틈에 나는 거기에 자꾸 어떤 단서를 달고 무리한 욕심만을 내려 했다. 반성을 했다. 속스러운 내 작품을 쳐다보며 그래도 작품 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솔직히 나는 그다지 착실한 학생이 아니다. 여전히 지각도 자주하고, 결석도 더러한다. 집에서도 연습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은 서실에 가면 얼마 안되는 시간이나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엇그제 금요일 저녁 루스채플의 이동식(?) 서실을 찾았다.(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동아리 연습실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루스채플의 만남의 공간을 매주 금요일마다 빌어 쓰고 있다.) 모두 자신의 글씨쓰기에 몰두한다. 선생님께 체본을 써주시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선생님의 붓놀림을 눈으로 따라 마음속으로 써본다. 전시회가 끝난 이후 나는 전서(篆書)체에 재미가 붙었다. 처음부터 이 글씨가 매력있게 와 닿았던 것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글씨체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 서너 서체에 능통하신 왕선배님들께서 글씨가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해 주셨다. 나는 그분들의 칭찬이 내게 기운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안다. 그렇지만 기본이 좋았다.

8시가 가까워져 하나 둘 자리를 뜨고 서실에는 회장님, 의료원에서 새로 오신 회원 한 분,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남아있었다. 도구를 챙기고 회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 정말 조용히 쓰고 계셨기에 인사가 방해가 될 것 같아 다 쓰실 때까지 기다리며 그분의 붓놀림을 지켜보았다. 회장님은 중국 북조시대의 명필 정도소(鄭道昭)의

정희하비(鄭義下碑)를 쓰신다. 북조시대의 가장 단아하고 우아한 해서체. 참 정갈하고 아름다웠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글씨를 쓰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 글씨를 마무리하시고 회장님은 조용히 도구를 챙기셨다. 붓끝을 계속 쳐다보아 방해가 되지 않았는가를 여쭙었더니, 누가 쳐다보든 그것을 신경쓰지 않는다고 대답하셨다. 그걸 신경쓰기 시작하면 글씨를 쓸 수 없다고 하셨다. "여기는 정말 잘 쓰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쓴 긴 시간으로 비교하면 나는 참 못쓰지요.(참고로 정말 겸손의 말씀입니다.) 나는 소처럼 묵묵히 쓰는 거지요. 남을 보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나 자신에게 충실히, 열심히 쓰고 있어요." 언젠가 나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말할 날이 있을까.

정말 잘 쓰든 못쓰든 그것은 내 글씨이고 내 모습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이다. 잘 쓴다면 좋지만, 못쓴다 해도 그것이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 무엇이 부끄러울까. 내가 부끄러운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먹을 갈며 마음을 함께 간다. 자기 글씨나 쓰지 남의 글씨만 왜 계속 쓰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다. 서예는 단순히 글씨의 형(形)만을 옮기는 재주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옛사람들의 글씨를 임서(臨書)하며 결국엔 그것을 통해 그분들의 인격과 정신을 배우기 위함이다. 언젠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분들의 정신의 요체가 내 몸과 정신에 배어든다면 참 좋겠다. 이것도 욕심이겠지. 욕심을 버리는 것은 집착을 버리는 일, 많은 십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다. 나는 여전히 부끄럽다. 글씨를 쓰는 것은 끝없이 자신을 비우는 겸손한 작업인 것 같다. 글씨를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운다. 서실 다니기를 참 잡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外道記

김 예 숙 (중영도서편)

"어디가 아프십니까?"

"네, 머리가 좀 무겁네요"

"얼마나 됐습니까?"

"오늘 오후부터요"

"일단은 두통제 한알 드렸더니 계속 아프시면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세요"

오늘도 나는 아프지도 않은 머리를 핑계로 아파트 상가의 약국을 들어가고야 말았다. 이렇게 해서 모은 약이 소화제에서부터 대일밴드까지 서랍으로 하나는 될 것이다. 그윽한 눈빛과 감미로운 목소리, 시원한 외모에 원만한 키, 그리고 적당히 다부진 몸매. 어디하나 흠잡을 데 없는 男子. 바로 나의 이상형의 남자가 거기 앉아 있었다.

출퇴근 때마다 지름길을 놔두고 일부러 약국 앞을 지나 돌아오는 길은 내가 한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도, 한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도 잠시 망각한 채 사춘기 소녀적처럼 마냥 설레이기만 했다. 안 그래도 잘하는 거라고는 먹는 일밖에 없는 남편의 예전에는 그냥 그래 보이던 배가 요즘 들어 부쩍 보기 싫어진 건 (그래도 연애했 때는 동식하니 보기 좋았었는데...) 이 男子의 출현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요즘 극장가에서는 중년의 사랑을 다룬 '情事' 인지 뭔지와 '실낙원'이라는 영화가 한창 인기라는데 이러다가 어거 나도 영화속 주인공처럼 되는 건 아닐까... 아니 못될 것도 없지! 이렇게 나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서서히 명랑한 상상을 하고 있을 즈음.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길에 약국 앞을 막 지나 나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약국 男子에게 고정되어 쫓는데... 부인인 듯 예쁘고 선하게 생긴 여자와 한 아이의 정명한 웃음소리와 함께 약국 男子의 너무도 행복해 하는 모습이 나의 눈에 들어왔다. 약국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고 있자니 내 마음까지도 행복해 번져 오는 것 같았다.

그래.. 약국 男子에게도 사랑하는 부인이 그리고 아이가 있었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 탈거냐는 재촉에 화들짝 놀라 부랴부랴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남편 월급날이네. 며칠째 야근하느라 힘들어하던데 저녁에는 시원하게 생터찌개라도 끓여 놔야겠다.☺

의학칼럼

감기 (상기도 감염, 급성 비인두염)

송 문 영

최근 날씨가 차가와 지고 건조해지면서 소아과 외래를 방문하는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감기는 소아의 가장 흔한 감염성 질환으로 1년 동안에 평균 6-8회 가량 감기에 걸리며, 2세 이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감기의 빈도는 노출 횟수에 비례해서 발생하므로, 탁아소나 유아원 등에서는 유행성으로 발생한다.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또 합병증도 더 많이 발생한다.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이 중 라이노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이다.

소아에서는 어른보다 증상이 심하며, 비인두뿐만 아니라 부비동, 중이 등에 잘 퍼 급되므로 중요시된다. 3개월 이상의 소아에서는 초기에 갑자기 열이 오르고 보채며 재채기를 하게 되고, 수 시간 내에 콧물이 나오면서 코가 막혀서 힘들어하게 되는데, 어린 아이 일수록 주로 코로 숨을 쉬므로 호흡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 간혹 구토나 설사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열은 수 시간에서 3일 정도 계속될 수 있으며, 화농성 합병증이 생기면 다시 열이 오르게 된다. 연장아에서는 초기에 코가 마르고 가려워하며, 인두 자극 증세도 자주 보이게 된다. 수 시간후 재채기, 오한, 근육통, 붉은 콧물, 기침 등이 시작되고 두통, 전신 쇠약, 식욕 감퇴, 미열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합병증은 주로 2차적 세균감염 때문에 일어난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이며, 감기 초기에도 생길 수 있으나 급성기가 지난 후에 생길 수가 있으므로, 감기 도중에 다시 열이 오르면 반드시 중이염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기타 부비동염(축농증), 경부 림프절염, 유양돌기염, 편도 주위 봉와직염, 안와 주위 봉와직염 등이 생길 수 있다.

수 백가지의 감기약이 나와 있으나 소아의 감기에 효과적인 약은 별로 없고 때로는 오히려 해롭다. 대부분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특수 요법은 없으며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 바이러스제는 아직 없다. 또 항생제의 사용이 병의 경과를 단축하거나 세균성 합병증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어린이가 열이 너무 높을 때에는 안정을 시키고 미지근한 물로 닦아준다. 이때 절대로 알콜을 사용하면 안된다. 열이 있으면서 몹시 보잘 때에는 타이레놀이나 부루펜과 같은 해열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아스피린은 라이증후군의 위험이 있으므로 해열제로의 사

용은 삼가하도록 한다. 코막힘이 심하여 수면 장애, 수유 곤란 등이 있을 때는 점비약(nose drop)이 도움이 되며, 생리적 식염수를 멸구고 흡인해 주는 것으로 일시 증세를 덜하게 할 수 있다. 엷드려 재우는 것도 분비물을 밖으로 흐르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방안의 습도를 올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좋는데 환아들은 대개 식욕이 감소하므로 억지로 먹이지 말고, 환아가 좋아하는 것(쥬스 등)을 자주 마시게 하는 것이 좋다. 일시적으로 변비가 올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게되면 쉽게 호전된다.

아직 만족할 만한 예방법은 없다. 비타민 C가 감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하나 예방효과는 확실치 않다.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하면 감염원으로부터 아이들을 격리시키는 것이 좋으며, 특히 어린 영아에서는 합병증이 상대적으로 심할 수 있으므로 환자와의 접촉을 삼가야 한다.

한편 독감, 즉 인플루엔자는 감기와는 다른 병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증상은 고열, 오한, 근육통, 기침 등이다. 치료는 대증요법이 주가 되나 심한 경우나 기존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아만타딘 등의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인플루엔자는 감기와는 달리 예방주사로 예방이 가능한데 모든 소아가 꼭 접종하여야 하는 기본접종은 아니고 고위험상태의 환아에게 추천되는 선별접종이나,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며, 큰 부작용이 없다는 점에서 가벼운 기존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점점 접종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건강한 소아도 원하는 경우에 접종이 가능하다. 매년 접종하고 9월부터 시작하여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인 11월 중순까지 접종을 완료한다.❀

- 송문영 선생님은 중앙도서관 김지현 선생님의 남편으로 현재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소아과의 전문의로 계십니다.



육아일기 하나

잃어버린 부성애를 찾아서

차기섭 (노동조합)

"웅대대웅대대웅대대웅대대..." 아련히 어디선가 들려오는 울음소리. 분명 새벽 2시쯤 되었으리라. 1시에 잠이 들었으니까 잠은 지 겨우 1시간. 나는 못들은 척 숫자를 세어 본다. '하나 둘 셋 ... 열다섯 열여섯 ...' "웅대대웅대대웅대대..." 아이의 울음소리가 약간 높고 빨라졌다. '...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 이제 울음소리는 옆집아이를 깨우고도 남을 만큼 다시번이 높아졌다. 울음소리가 유난히 큰 옆집의 조금 큰아이가 가세했다 하면 이젠 난리난거다. 사방 50미터 이내 모든 생명체는 잠 다 잤다. 두려움에 서른 다섯을 미쳐 못 세고 마나님을 깨웠다. - 어제는 마흔둘까지 세다 - "아졌다. 첫 줄 주라." 그제서야 우리 마나님 지친 신음소리를 내며 두 눈을 붙여놓는다. "잠 좀 자자 잠 좀 자. 내가 너 때문에 내명에 못 살아. 재발 좀 어찌고 저찌고 주철 주철 ..." 못것고 첫물리는 소리. 꾸욱꾸욱 꿀꺽꿀꺽. 가뜩이나 소란스럽게 식사하는 녀석이 한참을 우는 바람에 더욱 배가 고팠던지 자신도 모르게 이빨에 힘을 주었다. 우리 마나님 아파 죽겠다고 우열우열. 마나님은 벌써 며칠째 숙면을 취하지 못해 정신과 육체가 말이 아니다. 잠도 늦게 들뿐더러 2시간이 멀다하고 깨어 울어대는 용에 잠다운 잠을 잘 수가 없다. 잠 못 자는 거 이거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것이 아니다. 하루이튿날도 아니고 몇날 며칠째 1시간 혹은 2시간 켜켜 잠을 깨어 보라. 그러나 아! 이 고결한 모성애여! 우리 마나님 오로지 모성애 하나만으로 밤잠 설쳐가며 우리아이를 사랑으로 젖주며 키우신다. 비록 약간의 우열거림과 짜증이 섞이긴 했지만. 마나님에 대한 고마움, 부유(父乳)가 없음에 대한 다형스러움, 우리아이의 숙성제비 비결 등등을 새삼 생각해보다가 나는 다시 달콤한 잠에 빠진다.

"나 옥옥 좀 할테니 아이 좀 잘 보세요." 일요일. 모처럼의 늦잠과 간단한 아침. 커피 한잔에 담배 한 모금. 배 깔고 소파에 누워 '천원일기' 시청으로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있던 나는 "응, 걱정마."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옛날에 비해 재미가 한층 짝인 '천원일기'를 계속 볼 것인가 아니면 바둑TV를 볼 것인가로 잠시 고민하다 결국

은 손님의 향수(鄉愁)를 떨치지 못하고 '천원일기'로 채널을 고정, 명남과 복길의 사랑싸움에 한창 빠져들고 있을 즈음. 사위기의 썩 - 하는 소리와 철벽철벽 문 끼얹는 소리 사이로 아이의 웅대- 하는 울음소리가 건넌방에서 어렵듯이 들려오는 듯했다. 아니겠거니 하고 계속 테레비에 열중할까 하다가, 어딘가 한가지에 몰두하면 옆에서 소리를 질러도 못들은 나의 결정을 너무도 잘 말기에 혹시나 해서 건넌방으로 가봤더니 아니나다를까. 얼굴은 눈물범벅이고 이불은 다차버리고 한참 동안 울어왔는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 거의 끝까지 넘어갈 지경이다. 아이쿠나 마나님 말엔 큰일난다 싶어 비호처럼 몸을 날려 아이를 안아주고 혼들어냈다. 이방 저방 거실 청신없이 옮겨다니며 한참을 혼들어줘도 도통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자꾸만 몸을 비틀고 버텨기기만 해대는데. 우유 먹은 지 두시간도 채 안됐으니 배고플리는 없고 - 출산휴가 끝나기 열흘전 첫째도 지금은 우유를 먹인다 - 막자고 일어난 녀석이 참 두렵할리도 없고. 그렇다면 맞아. 기저귀. 그래 월경 쉬- 아니면 웅-아다. 다시 놓쳐 막 바지를 벗기는 순간 이거 심상찮다 싶더니 갑자기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 - 첫먹을 때와는 분명 다르다 - 와 기저귀덮개를 비집고 나와 무릎까지 올라내린 거 무위위한 배설물. 순간 당혹감에 바지를 벗기는 손질이 딱 멈췄다. 이를 어떡하나. 도저히 덮개를 벗길 염두가 나지 않았다. 웅-아하라고 힘주다보니 잠이 잤고 웅-아하고 나니 찼찼하고 답답해 울어왔는데 기저귀 갈아줄 생각은 못하고 달려본 거라고 10분을 넘게 안고 혼들어냈으니. 상상해보라. 아이를 안을 때보다 더 찼찼게 몸을 날려 옥실문을 두드리며, "크큰일났다. 아가 똥을 엄청 싸 갖고 웃도 다버리고 마 엉망이다. 내는마 도저히 어케야 될지 모르겠다. 피딱 좀 나와봐라." 아! 창피도 러울도 벗어던져버린 거룩한 모성애여! 우리 마나님 씻다말고 물기운은 웅을 수건으로 대충 가리고 뒹쳐나와 아직도 울음을 그치지 않은 아이에게도 달려간다. "내가 못살아. 도대체가 도움이 안돼 도움이." 나를 향한건지 아이를 향한건지 모를 낯두리와 함께 벗기고 닦고 바르고 입히고 난리가 났다. '나는 옥먹어도 싸. 나는 나쁜놈이야.' 아! 빛바랜 부성애여!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도의적인 죄책감과 마나님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을 가지고 나도 부성애를 한번 발휘해 보자고 오지게 마음먹은 어느 금요일밤 - 토요일이 쉬는 날이었으니까 - 자다가 일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 애초에 자지 말자. 별별 생각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여 들려오는 울음과 한참을 사투를 벌이다 시계를 살펴보니 새벽3시15분. '아이가 11시30분경 잠이 들었으니 4시쯤이면 한번 깨겠지.' 다시 졸린 눈을 부

듣고 이번에는 아이를 속성으로 키워본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순식간에 거쳐 중,고등학교를 모범생·우등생으로 졸업시키고 대학진학은 서울대와 연세대를 놓고 잠시 고민하다 그래도 이 아빠와 인연이 깊은 연세대로 결정, 부녀가 함께 오붓하게 출근하는 모습을 잠시 그려보고, 졸업후 진로는? 유학-돈이 많이 들고 보고 싶은 거야, 결혼-아까워서 어떻게 보내지, 취직-변호사, 의사, 교사, 디자이너, 교직원 등등. 갓난 아이 어른으로 키우는데 이렇게 쉬운 수가 없다는 생각에 나도 몰래 빙그레 웃음 한번 지어보고 그 때 가면 내 나이는 거의 60. 으악. 속으로 비명을 질러보기도 하고. 또 이 생각 저 생각 생각 생각 생각... 하고 있는데, 고요한 적막을 깨치는 한층 기 외침. "응애애애애..." 드디어. 마침내. 미리 생각해 두었던 시나리오대로 일단 아이를 안아주고 달래기 - 마나님을 졸깃 살피보니 퍽 퍽 콧소리까지 내며 찰도 주무시고 계시다 - 다시 좀더 조심조심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그렇지. 보리차 2/3컵 전자렌지에 넣고 50초 동안 작동. 그 사이 우유병에 우유 6스푼 메디락베베 작은 걸로 한 스푼. 땡- 땡-. 전자렌지 작동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음. 우유병에 더운물 찬물 섞어 120ml 붓고 침전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마구 흔들다 다시 모유온도(38도쯤?)에 가깝게 찬물로 식히기. 우유병의 물기를 닦고 아이의 입에 물리기까지 총 소요시간이 약 5분. 속달된 조교 이상이다. 아빠의 품에 안겨 식사하는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감상하다 마지막 남은 거품을 먹지 않은 정도에서 우유병을 빼앗고 2단계 작전 돌입. 잠재우기. 마나님 깨시지 않게 조심조심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와 흔들며 물기를 10여분. 눈이 말뚱말뚱 총체 잠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그렇다면 자잠가 공습이다. "자잠자잠 자잠자잠 우리아가 자잠자잠 이쁜아가 착한아가 우리아가 자잠자잠 ..."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틈이 효과가 있나 보다. 그렇다면 실용없이 파상공세다. "자잠자잠 우리아가 찰도 자네 우리아가 달도자고 별도자고 아빠자고 엄마자고 다면이자고 지현이자고 너도자고 나도자고 ..." 정신없이 자잠가를 부른다 아이를 살피보니, 잔다. 드디어 잔다. 마침내 나도 해냈다. 오! 이 짜릿한 부성애여!

사랑하는 나의 둘째딸 지현이. 불쌍한 아이. 지엄마 뱃속에서 나와 수술실문을 나설 때부터 외할머니의 외면과 아빠의 굳은 얼굴을 대해야 했던, 고명한 딸이 아니라 천억우러기 기침애로 태어나 둘째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선공과 구박을 받고 살아야 할 가여운 아이. 남동생 보게 된다고 작명가가 지어준 별로 이쁘지도 않은 '완진'이

라는 이름을 따로 가져야만 하는 내 아이. 지면니 다면이의 시기와 철두, 가족한 폭력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할 모진 운명 - 사실 온전한 순간을 포착하여 부위 가리지 않고 닦치는 대로 고집고 할퀴고 비틀고 꺾어박는 품에 하루에도 몇 번씩 경기하듯 울어대고 논쟁이 밤샘이론 예사이고 주먹으로 호되게 얻어맞았는지 이따가 눈에 보일 정도로 함몰된 적도 있다 - 배내웃, 기저귀부터 새 것이라고는 구경도 못해보고 장난감마저도 한 짝을 잃거나 나사가 빠져 달아난 귀퉁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찢부러지는 등 어쨌거나 처음 살 때의 정상적인 모습을 잃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유아시절을 보내야 할 이 아이. 아무것도 모르고 밝게 자라다 어느 날 둘째로서의 설움을 인식하면서 받을 정신적 충격. 차남의 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빠는 벌써부터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아가야! 니면니에게는 비밀인데 이 아빠는 니면니 보다도 너를 더욱 사랑한다. 아빠는 항상 니편이야."



육아일기 두울

나는 왕비로소이다

· 양 현 구 (법과대학)

서른 셋...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하여 후다닥 아이 둘을 낳고 정신을 차려 보니 지금의 이 나이가 되어 버렸다. 결혼 4년차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미혼인 것처럼 착각에 산다. 이런 나를 남편은 "언제 칠둘래.." 하지만 내 자신만 생각하면 난 아직도 결혼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아직은 옷을 살 때나 컵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에게서 "결혼하셨어요? 아이도 있어요?.. 오모나~" 라며 호들갑을 떨어도 난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내가 다섯달 전에 둘째 아이를 낳았다. 첫째아도 딸, 둘째 아이도 딸.. 난 딸기(딸+기집애)엄마가 된 것이다. 이제는 아이도 돌씩이나 낳았으니 나의 고질병인 공주.. 아니 왕비병이 없어질 때도 됐건만 요즘은 더욱 증상이 심해졌다. 아이낳고 돌아온 나를 직접 본 독자(?)는 모두들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거울을 봐도 난 두 아이의 엄마가 아닌 것이다. 우하하~

간혹 내 면전에서 "이제 한물 갔다.."느니, "어휴~ 엉덩이가 두 아이의 엄마를 맡혀 주네.."느니, 잔혹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순전히 나를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임을 나는 안다....

첫째 승현이를 낳을 즈음엔 시부모님과 따로 살았기 때문에 승현이는 할머니와 함께 자는 습관이 들어 3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할머니와 자고 있다. 그러나 둘째 양현이는 우리 부부가 데리고 자서 그런지 승현이에게선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정을 느끼고 있다. 새벽에 한 두번 깨어 우유를 먹일 때도, 가끔 잠을 안자고 칭얼댈 때도 난 별떡 별떡 일어나 능숙하게 아이를 돌본다. 첫째가 울 때나 아파할 때는 솔직히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할지 몰라 어머니에게 많이 의존했었는데 어젠 남편도 둘째를 제법 안아주고 얼러주고 아주 가끔이지만 기저귀도 척척 갈아준다. 이제야 우리 부부는 진짜 엄마, 아빠가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승현이는 언니된 사실이 억울한지 가끔 동생을 쥐어박고 꼬집는다. 내리사랑이라는 얘기가 맞는지 그러면 안되는 걸 알면서도 동생편을 많이 든다. 우리 불쌍한 승현어.....

승현이 혼자일 때 몰랐던 사실이 있다. 승현이가 하는 것이나 생긴걸 보면 나의 어릴 적 모습과 판박이란다. 하지만 승현이한테는 "똥똥해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 "씩씩하게 생겼다"라고 얘기했지, 예쁘다는 얘기는 솔직히 들어보질 못했는데 아버를 닮은 양현이한테는 모두들 "예쁘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인물 원하 다..."고 하셨을 때 만해도 그저 '고슴도치 어머니'이라고 속으로 흥냈는데, (물론 울 엄마도 남편한테 "우리 딸 잘났다.."고 한다) 정작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론 잘난 남편과 사는 내가 더 잘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인정하기가 기본 나쁘다. 내가 볼 적엔 양현이가 나를 더 닮은 거 같아서 말이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일은 하나는 엄마를, 하나는 아버를 닮았는데도 양현이는 언니의 그때 모습을 꼭 빼 닮았다.

양현이가 태어났을 때 솔직히 딸이라 섭섭했다. 어르신네들은 지금도 가끔 "뭐라도 달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니..."하신다. 내가 섭섭했던 건 단순히 또 딸을 낳아서라기보다는 장손과 결혼한 외머느리로서의 부담감에서 엮을게다.

나는 남매의 딸이로 태어났다. 어릴 적엔 언니나 여동생이 없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내 동생은 남자였지만 나를 끔찍이 따랐고 나를 위해 많은 봉사(?)를 했으며 얼마나 아버도 모두 내 위주였다. 그런 특혜를 나는 나누어 주는 게 싫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공주같은 누나덕분에 아들덕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는데 나오는 정 반대인 여자를 만나 이제야 왕대접을 받고 산다. 고마운 내 동생... 그런데 요즘은 언니나 여동생이 없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절실히 실감하고 있다. 삼십대 중반이 다 되어가는 데도 친한 친구들은 아직도 청춘으로 사느라 결혼을 안 해 육아문제나 결혼생활에 대해 터놓을 만한 대상이 없어 더욱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승현이는 여동생이 있어서, 양현이는 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배록 승현, 양현어에게는 어모가 없지만 미래의 내 손주들은 서로 어모가 있다는 사실이 든든하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어쩌다 남편과 아이 둘이 모두 나란히 누워 자는 모습을 보면 나는 가슴이 벅차 올라 순간 백년 만년 밤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질 것 같은 생각도 든다. 나같은 식중이가 말이다. 식구가 하나 돌씩 늘어나는 기쁨을 이제야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하어튼 아버를 닮았건 엄마를 닮았건 내 본신들이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서 아버가 엄마를 잘 보필(?)하지 못하는 커다란 부분을 채워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왕비 다... 대왕마마와 두 예쁜 공주와 살고 있으니 말이다.☺

지상강의 - 영시감상

* 최종철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고 해설과 번역도 직접 해 주셨습니다.

최 종 철 (영어영문학과 교수)

I Look into My Glass

I look into my glass,
And view my wasting skin,
And say, "Would God it came to pass
My heart had shrunk as thin!"

For then, I, undistrest
By hearts grown cold to me,
Could lonely wait my endless rest
With equanimity.

But Time, to make me grieve,
Part steals, lets part abide:
And shakes this fragile frame at eve
With throbbings of noontide.

- Thomas Hardy -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늙을 터이니 오늘은 한 늙은 남자가 이제는 차갑게 멀어져 간 사람들을 생각할 때—물론 한 늙은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습시다만—어떤 심정이 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주제로 위의 시를 쓴 토마스 하디(Thomas Hardy)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스]를 쓴 영국 출신의 소설가입니다. 그러나 하디는 소설 못지 않게 훌륭한 시를 많이 남긴 시인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하고 감상하려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크게 세 연(stanza)으로 되어 있는데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감정과 생각은 첫째 연 둘째 줄의 "시들어 가는 피부"(wasting skin)와 셋째 연 마지막 줄의 "심장의 힘찬 고동"(throbbings) 사이의 뚜렷한 대조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시는 이 명확한 대조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줄—I look into my glass—은 시를 쓰게된 상황을 제시합니다. 거울 속의 자기를 들여본 시인의 눈에 가장 먼저 그리고 뚜렷하게 들어오는 것은 늙어 가는 피부입니다. 피부가 탄력을 잃느니 노화 과정이니 어려운 말들을 쓰지만 결국 물이 빠지는 현상이지요. 우리는 늙어가는 주름살 때문에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리고 싶은 나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니까요. 그러나 시인의 관심은 나이 자체에는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늙어 가는 피부와 같은 속도로 늙어가지 않는 마음, 또는 같은 정도로 쇠약해지지 않는 심장에 있습니다. 이때 마음 또는 심장은 영어의 heart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을 모두 전달하려고 풀어쓴 것입니다. Would God은 "제발 —했으면"이라는 뜻이고, it는 가주어로 My heart had shrunk as thin!을 가리키며 (as thin은 물론 as thin as my skin을 생략한 것이고), came to pass는 어떤 일이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연을 요약하면 시인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쭉그러들어가는 피부를 보면서 내 심장(마음)도 피부와 같은 정도로(또는 속도로) 늙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나(앞에서 시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좀 어려운 말로는 화자라고 하는데 몰라도 괜찮습니다)는 나를 점점 차갑게만 대하는 심장(마음)들 즉 나를 쌀쌀맞게 대하는 사람들(hearts grown cold to me)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고(undistrest) 평정한 마음으로(with equanimity) 나의 영원한 휴식(my endless rest) 즉 죽음을 혼자서 기다릴 수 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멀어져간 사람들을 생각해도 내 심장이 옛날처럼 흥분해서 뛰지만 앓는다면 말입니다. 내 안에 영원히 살아있는 소녀의 마음이 피부 따라 같이 늙어주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나를 슬프게 만들려고 일부는 훔쳐가지만(part steals) 일부는 남겨둡니다(lets part abide). 다시 말하면 팽팽했던 피부의 물기와 광택은 벗어가지만 심장의 흥분 능력은 그대로 놓아둔다는 것이지요. 몸은 칠십인데 마음은 여전히 이팔 청춘.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시간은 대문자 T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시간의 신과 같은 거역할 수 없는 존재, 그 법칙을 모두 따라야만 하는 불가항력적인 힘이나 원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늙은이에게 주는 최대의 괴로움은 마지막 두 줄에 드러나 있습니다. 시간은 저녁에 이르른(at eve, eve는 evening의 뜻) 허약한 육신(fragile frame)을 한낮(noontide)의 박동(throbbings)으로 뒤흔들어 놓으니까요. 여기에서 저녁과 한낮은 인생을 하루의 여정에다 비유할 때 청춘과 노년을 뜻하며, 그냥 정오(noon)라고 하지 않고 조수(tide)란 단어를 덧붙인 것은 삶의 물결이 높이 올라갔다 밀바닥으로 내려가는 변화의 과정을 좀더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지요. 황혼에 다다른 몸으로 청춘의 아름다움을 기억에 떠올리며 한때 따뜻했던 사람들 생각에 가슴만 떨리게 만드는 시간의 심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외로이 죽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마지막 연의 각운을 통해서도 강조됩니다. grieve와 eve가 한줄 건너 같은 소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grieve at eve 즉 황혼에 슬퍼하다 라는 뜻이 되고, 마찬가지로 noontide와 abide도 한낮은 남는다 즉 뛰는 심장은 그대로이다 라는 뜻이 되니까요. 청춘의 열정은 식지 않아 늘그막에 슬퍼하다. 이 얼마나 알맞은 심사이겠습니까.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제가 한 번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와 우리말이 다르기 때문에 전달 과정에서 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가 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번역을 읽은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영시를 읽어보시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시로 전하는 방식에서 영어와 우리말이 차이가 있지만 또한 공통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것입니다.



< 번역 >

거울 속의 나를 보니

거울 속의 나를 보니
 찌들어가는 내 피부가 보인다
 그래서 "제발 내 심장도 저렇게
 쪼그라드는 때가 왔으면" 말해본다

그렇게만 된다면 난 내게서
 차갑게 떨어져간 이들에겐 신경 끊고
 편안한 마음으로
 영원한 휴식을 혼자서 기다릴 수 있으련만

그러나 시간은 날 슬프게 하려고
 어떤 건 벗어가고 어떤 건 남겨둬서
 해질녘의 허약한 이 몸은
 한낮의 고동으로 세차게 흔들리네

토마스 하디 지음

특집 - IMF 파도넘기 - 씹씹이는 줄이고 희망은 키우고

IMF 앞둔경제 10계명

***제1계명 - 일단 저축부터 하고 소비한다.**

고물가, 고금리, 고실업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저축을 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더 많이 벌면 될 것 아니냐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바뀐 상황에선 돈 벌기가 쉽지 않다.

재일교포 중에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돈 잘 버는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미분 적분은 몰라도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번 것이 쓴 것보다 많으면 된다. 즉, 번 것보다 쓰는 게 적으면 된다는 간단한 이론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선저축 후소비 생활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제2계명 - 옷이 날개? 날개를 접는다**

'옷이 날개다' 라는 옛말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96년 의류 지출비용은 14조8천억원이다. 그뿐이 아니다. 의류를 수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조8천억원이다. 한국 사람들이 날개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는가를 알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많은 거품을 뿜 수 있다. 요즘은 워낙 옷이 좋아져 떨어져서 '옷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저 유행이 바뀌어서, 실종이 나서 '안 입는' 것이 대부분이다.

조금만 사치심을 버리고 날개를 접어보면 어떨까? 또 고급 브랜드를 찾기보다 개성을 살려보는 것은 어떨까? 요즘 재활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활용하기가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옷이다. 가지고 있는 옷이 유행에 조금 뒤지더라도 코디네이션을 적절히 하면 새로운 분위기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 그 동안 날개 치장하느라 돈을 많이 들인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제3계명 - 체면과 허례허식을 줄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례허식 비용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결혼 비용이다. 한 쌍이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이 7천5백만원 정도 된다는 조사자료가 있다.

이 비용은 지금 경제대국인 미국의 4.8배, 일본의 3.3배, 싱가포르의 7.3배나 되는 액수이다. 그 돈의 상당량이 예식장 비용을 비롯한 각종 행사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니 참 기가 막힌 노릇이다.

IMF 시대를 맞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음식점에 가서도 우리는 쓸데없는 것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식사하고 뛰어나가서 서로 계산한다고 싸우는 모습이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는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제4계명 - 통신을 적극 활용한다**

요즘 움직이면 다 돈이라고 한다. 사람을 직접 찾아가려면 아무래도 돈과 시간이 든다.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인사를 해야 할 경우에 통신을 적극 활용해 보면 어떨까? 전화도 좋고, PC통신, 팩스도 좋다. 이런 기기를 잘만 활용한다면 왔다갔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정보통신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 지 아무 때나 휴대전화를 걸어서 수다를 떨라는 얘기는 아니다.

***제5계명 - 시간을 단축하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돈을 낭비하는 것만큼 살아가는 데 치명적인 결과를 준다. 적은 시간을 알차게 일하고 단기간에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주부는 가급적이면 오전시간을 알차게 쓰는 것이 좋다. 아침에 출근할 사람 출근하고 학교갈 사람 학교가고 나서 정신이 맑을 때 시간을 잘 쓰면 하루를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아침에 느긋하게 움직이다 보면 하루종일 뭘 했는지, 그저 가사에 쫓겨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된다.

***제6계명 - 건강과 심기관리를 잘한다**

요즘 보면 괴롭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괴로우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술 당배에 자주 손을 댄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주부들까지도 술과 당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음주로 인한 손실이 한 해에 9조8천억원이라는 통계자료가 있다. 술을 마시다보면 음주사고도 발생하고 또 건강을 해쳐 의료비용이 들고, 생산성이 떨어져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 9조8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심기관리를 잘해야 한다. 별것도 아닌 일에 불안해하거나 기분이 나빠지면 일의 생산성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또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간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듣는 '당신이 최고' 라는 그 한마디가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 제7계명 - 구두쇠라고 선전하고 다닌다

어떤 중소기업 사장은 아주 오래된 소형차를 타고 다닌다. 돈은 많은 분이다. 그런데 왜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지 이유를 알고 보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차만 봐도 알겠다. 저 사람한테는 돈 얘기를 하나마나구나' 하며 말도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요즘 향간에 WSK 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WSK는 왕소금의 약자이다. 외모에서부터 아예 구두쇠라고 선전하고 다니고 10원짜리 동전까지 공공히 챙기다 보면 건드리는 사람도 없어진다. 예전에는 폐쇄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요즘은 이런 사람보고 애국자라고 한다.

• 제8계명 - 가정 오락을 개발한다

얼마 전까지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로 많이 나갔었는데 이제는 돈이 들어 사실 다니기가 겁나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돈 안 들이고 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가정오락을 개발해 보자. 집에서 아이들과 노래도 불러보고 춤도 춰보고 책읽기도 하고 가정마다 특성을 살려 게임을 하다보면 따뜻한 생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가정이 될 것이다.

• 제9계명 - 자녀에게 경제교육을 시킨다

자녀들에게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어른들은 IMF 체제가 왜 왔는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리고 연일 매스컴에서 떠돌고 있고 관련 책자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이해를 못하고 있다.

기성세대만 하더라도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해봤지만 7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고생이 뭔지 모르고 자랐다. 어려서부터 냉장고가 있고 컬러 텔레비전이 있고 나가서 외식하고 사달라는 것은 다 사주었는데 갑자기 경제가 심각하다 하니

까 어리둥절해지는 것은 아이들뿐이다. 때문에 이제는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을 시켜야 된다. 돈이 왜 소중한가? 지금 우리에게 1달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용돈을 주는 것은 좋다. 아이들도 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돈을 주되 낭비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용돈 기입장을 반드시 기입하여 부모에게 보여주도록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아이들 경제 교육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용돈을 그냥 안 준다. 청소를 하든 심부름을 하든 잔디를 깎든 일을 한 대가로 준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돈이란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단돈 백원이라도 함부로 쓰면 안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자녀들에게 험하게 돈을 주었다. 그저 공부만 잘하면 돈을 준다거나 값비싼 물건을 일척 사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것이다. 이래선 안된다.

• 제10계명 - 비전을 만들고 생활한다

비전이란 무엇인가?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론 좋아진다' 라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희망과 꿈이 있으면 힘든 일도 잘 참을 수 있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일도 기꺼이 하게 된다.

IMF 시대 알뜰경제 10계명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고 또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것일 수 있다. 지식으로 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 당장 실천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IMF 시대에 빠지기 쉬운 함정 - 부정중독

어렵고 힘들수록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사방을 둘러봐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IMF 시대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바로 부정중독증이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나는 안돼' '우리는 이런 거 못할 거야' '우리는 망하게 돼 있어' 하는 식의 부정적인 결론부터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무조건 안된다고 결론을 내린 다음 그 일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온갖 이유를 찾아내기 때문에 결국은 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끝마다 부정적으로 '우리 집안은 안되게 되어 있다' 는 소리만 하고 다닌다면 그 집안은 결국 망하게 된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인자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인자가 있다.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체로 성공하는 것 같다. 이들은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핸디캡을 무시하고 오히려 장점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자신의 핸디캡에 발목을 잡혀 지내고 있다.

'내가 전공만 맞았더라면, 좀더 좋은 대학만 나왔어도, 우리 집안에 유력인사가 한 명만 있었더라면,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도, 하면서 온갖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다. 심지어는 '내가 인물만 조금 더 나왔더라면, 키가 좀 더 컸더라면' 하는 말도 한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잘 생기고 키가 크고 탤런트처럼 말쑥한 게 아니다. 그럼 학벌이 다 좋을까? 무학으로 성공한 사람도 많다. 이런 것을 본다면 핸디캡에 민감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핸디캡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핸디캡을 지적하고 이것을 메우는 쪽으로 너무 강요하다 보니 이것이 머릿속에 강하게 새겨져 평생 핸디캡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차피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없는 존재다. 여기에 핸디캡에까지 민감해져 부정중독증에 걸린 사람으로 자신을 더욱 끌어내릴 필요는 없다.

※ 이 글은 윤은기 저 「핑크칼라 성공시대」(도서출판 무한 펄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밝고 건강한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실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다이어트하자 ~

자동차 보험료 절약 요령

1. 무사고 운전으로 보험료 할인받는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부담을 덜어 준다. 특히 작년 8월 이후부터 책임보험에도 종합보험의 무사고 할인, 사고할증 및 보험가입 경력에 따른 할인, 할증을 및 보험가입 경력요율이 100% 적용되므로 무사고시의 보험료 할인폭이 과거보다 더욱 커졌다. 무사고 7년 이상이면 60%까지 할인. 또한 보험 계약 기간이 끝나고 1개월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매년 추가되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던 종전 제도가 3년 이내에 갱신하면 연장되는 것으로 올 8월부터 바뀌었다. 앞서 쌓아놓은 할인이 없어지지 않도록 계약 기간을 미리 미리 챙기는 습관을 갖도록.

2.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킨다

97년 12월 1일부터 음주운전, 과속, 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11개 중대법규를 위반한 경우 99년 5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계약분부터 보험료가 할증되며, 법규위반자들이 낸 보험료 전액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킨 운전자에게 할인혜택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보험료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 할인·할증률은 97년 12월 1일~98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99년 4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3. 운전자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운전자 연령에 따라 3가지 종류의 상품을 선택 가입할 수 있다. 만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 만 21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상품이 그것. 운전자의 연령을 21세, 26세로 한정할 경우에는 각각 20%, 3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반면 운전자의 연령이 제한돼 있어, 상품에서 정한 나이보다 어린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보험 가입시 선택한 운전자 연령을 확인 후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자기부담금을 활용한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 차량이 파손됐을 때 차량 수리비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는 제도로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5종류 중 가입자가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그러나 높은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반면, 사고시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보통 50만원 이하의 사고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5. 가족단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일명 오너보험)이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운전할 때만 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된 반면 보험료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 상품보다 35%가 저렴하다.

6.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기준 보험료가 다르다.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기준보험료가 차별화돼 있다. 100cc 이하의 경우 대인 22.3%, 대물 17.6% 인하, 1,000cc~1,500cc의 경우 대인 1.1%, 대물 1.5% 인하, 1,500cc~2,000cc는 대인 3.2%, 대물 4.7% 인상, 2,000cc 초과일 경우 대인 35.4%, 대물 20% 인상된다.

7. 무사고 계약자는 할인받는다.

개인 사업용인 경우 5년 무사고 운전자는 1% 할인, 출퇴근의 경우 10년 무사고자는 3%, 3년 무사고자는 1% 할인받는다.

8. 안전장치 부착차량은 할인받는다.

에어백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앞좌석 모두 장착했을 경우 29%, 운전석만 장착했을 경우 10%(단, 자기 신체 사고에만 적용 됨) 할인된다.

9. 해외보험가입자의 인정

해외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귀국할 때 현지보험사로부터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신규가입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반대로 국내 가입자가 영문 무사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외국 보험사에 제출시 미국의 경우 50%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 종합보험 모든 종목에 가입하면 5% 할인받는다.

종합보험 가입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 5가지의 종목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11. 보험료는 은행의 자동이체를 이용한다.

장기손해보험 가입자는 은행의 자동이체제도를 이용해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료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편리하다.

98년 8월 1일부터 개선된 자동차 보험제도

83년 타원화된 이후에 매년 적자를 내던 자동차보험이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2천6백3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의식이 높아지고 정부 및 손해보험업계 등 교통유관기관의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활동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가 감소되었다. 보험료는 단기간의 이익이나 손실로 올리고 내리는 것이 곤란하지만, IMF 시대임을 감안해 손해보험업계가 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인하한 것. 97년 이익 부분을 보험료 인하와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인상 등으로 국민들에게 보험회사가 이익본 부분을 환원하는 것이다.

1.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5.6% 인하된다.

담보 종목별 보험료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율이 낮은 책임보험료를 평균 14.3% 인하하고, 손해율이 높은 종합보험의 보험료는 평균 0.3% 인상함으로 전체적으로 평균 5.6%가 인하됐다. 손해율이 낮은 경승용차와 소형 승용차는 각각 12.2%, 7.1% 인하, 손해율이 높은 중형 승용차와 대형 승용차는 각각 2.9%, 3.5% 인상했다.

2. 자동차보험 가격 자유화가 시행된다.

기존에도 기본 보험료의 범위를율제(변동제)가 자가용 $\pm 3\%$, 업무용 $\pm 5\%$, 영업용 $\pm 10\%$ 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구분요소가 동일해 손해보험회사별로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그 범위를율 폭을 2배로 확대했다. 연령, 차종, 성별, ABC, 도난방지장치, 안전장치 등 요율 구

분요소를 새롭게 도입하고 자가용 $\pm 6\%$, 업무용 $\pm 10\%$, 영업용 $\pm 20\%$ 로 확대했다. 따라서 보험료를 결정할 요소가 다양해지고 범위를 폭이 넓어 보험회사별로 보험료가 다양, 차별화된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3. 보험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도 상향조정

기존의 약관상 지급 기준은 법원 판결금액의 62.5%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를 선진국 수준인 68%까지 상향조정했다. 사망·후유장애시 위자료 상향조정, 생활비 공제율의 축소 조정,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의 보상범위 확대,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의 보상범위 확대, '자기신체사고'의 부상보험금 상향조정 등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인상했다.

4. 면원을 유발했던 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첫째로 자동차 보험료 미납시 최고료가 면제된다. 기존에 보험료를 2년에 나눠 내는 경우, 납입기일을 지체지 못하면 최고통지를 보내는 우편료 6천5백원을 계약자가 부담했으나 면원이 많아 이를 폐지했다. 둘째, 승용차와 승합차의 할인·할증률 승계를 인정한다. 기존의 산파모, 카니발, 봉고, 그랜저 등 배겨용 다목적 차량인 9인승 이내 승합차량을 운전하다 승용차로 바꾸는 경우에는 할인이 승계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승합차의 할인이 승용차에도 그대로 이전된다. 그러나 승합차의 할증률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사고를 내서 할증을 받던 사람이 승용차로 차를 바꾸면 할증도 그대로 승계된다.

5. 보험을 계속해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 무사고 할인기간도 확대된다.

무사고로 할인받던 운전자가 1년 이상 보험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 할인 기록이 없어지는데, 앞으로는 할증을 지속기간과 맞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면 과거 할인을 그대로 적용 되도록 했다. <카네로 9월호에서 발췌>



법률상담 - 어쩌하오리까...

질문 : 안녕하세요! 먼저 필알지에 이런 법률상담 코너가 생겨서 정말 기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웃집 건물에 불이 났는데 때마침 바람이 우리집 쪽으로 불어 이웃집은 조금 타다가 꺼졌는데 우리집은 건물 전체가 다 타버렸습니다. 화재 원인결과 누전이라 합니다. 이웃집 주인에게 변상을 요청하였으나, 사실상 힘들었고 지금은 그저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보상은 포기했습니다. 소송을 걸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절차가 워낙 까다롭고 방법도 잘 몰라 속수무책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고 실제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중앙도서관 K)

답변 : 우선 화재로 인하여 집이 전부 타버린 것에 대하여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웃집간의 화재 발생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법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화재발생의 경우에만 이웃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누전이라든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가입하신 보험 또는 연금 중에서 집의 화재에도 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약관을 다시 한번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법과대학 이상윤 -

* 상담을 해 주신 이상윤 교수님은 현재 법학과 교수로서 앞으로 법률상담 코너를 맡아 상담하여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법과대학 양현주에게 연락주십시오.(E-MAIL : jecsy@bubble.yonsei.ac.kr).

취미교실 설문지 분석

* 여직원회에서는 보다 흥미롭고 유익한 취미교실과 교양강좌를 이끌어 가고자 여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1. 참가하고 싶은 강좌

기본적으로 12가지의 강좌를 보기로 들어서, 52名에게 참가하고 싶은 강좌를 3가 지를 선택하도록 질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답변은 156건(件)이며 이중 미비한 답변 13건(件)을 제외한 나머지 답변 143건(件)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 습니다. (이 때, 3가지 답변은 가중치를 두지 않고 모두 똑같이 적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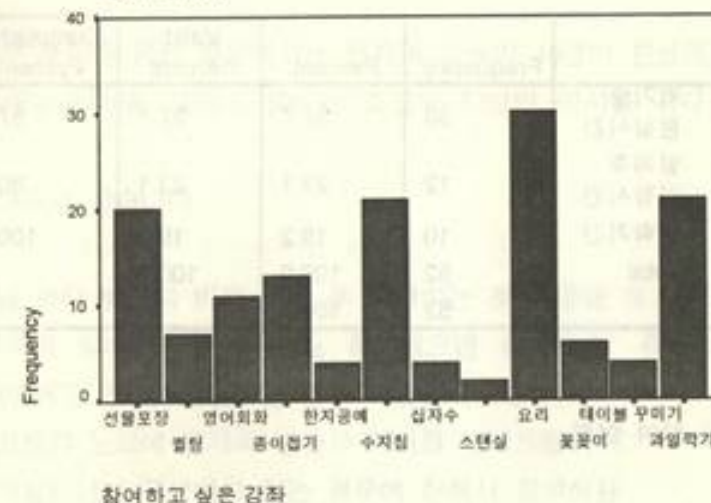
가장 참여하고 싶은 강좌는 '요리(드레싱, 샐러드)'로 나타났습니다. 이 강좌는 52名 중 30名이 답변을 함으로써 전체의 58%가 참여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 다. 다음은 '수지침'과 '과일깎기'로서 21名이 답변을 하였고 이는 전체의 40%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스텐실'은 2名으로서 4%, '한지공예'와 '십자수' 그리고 '테이블 꾸미기'는 4名으로서 전체의 8%에 불과하여 호응이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각 과목당 참가를 원하는 사람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선물 포장	캘팅	영어 회화	종이 접기	한지 공예	수지침	십자수	스텐실	요리	꽃꽂이	테이블 꾸미기	과일 깎기
20	7	11	13	4	21	4	2	30	6	4	21

Bar Chart



그리고, 보기에 나와 있는 강좌 외에 개설하였으면 좋은 강좌로는 '운동'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6件) 구체적으로 수영·스키·에어로빅·단전호흡·요가 등이 제안되었다. 이밖에도 또한 일어회화·중국어회화와 같은 외국어 회화와 작문법, 대화기법, 예절강좌, 악기연주, 피부관리, 건강지압, 뜨개질, 패션코디 등의 강좌 개설 요구도 있었습니다.

2. 적절한 강좌개설 시간

강좌개설시간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52名 중에서 30名인 58%가 '학기중 점심 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23%는 '일과후 일정시간'이, 19%는 '방학기간'이 적절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주말'이란 답변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서, '학기중 점심시간'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부족하여 강좌를 익히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소수의견도 나왔습니다.

적절한 강좌개설 시간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학기중 점심시간	30	57.7	57.7	57.7
	일과후 일정시간	12	23.1	23.1	80.8
	방학기간	10	19.2	19.2	100.0
	Total	52	100.0	100.0	
Total		52	100.0		

3. 비용 소요시 참여 여부

비용이 들 경우의 강좌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90%이상인 47명이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비용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4. 취미교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

취미교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골고루 나왔습니다. 먼저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는 대답이 27명으로 전체의 52%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원하는 강좌가 없어서'가 23명으로 44%, '업무에 바빠서'가 33%, 그리고 '회원들의 무관심'이 23%로 나타났습니다. (복수응답으로 합이 100%를 넘음)

따라서, 이는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홍보부족'이라는 응답은 단 한 명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홍보는 양호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원하는 강좌가 없어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업무에 너무 바빠서	회원들의 무관심	홍보부족
23	27	17	12	1

5. 타인의 참여 여부

타인의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77%인 40명이 찬성의 의사를, 13%인 7명이 반대의 의사를 그리고 10%는 조건부 찬성의 의사를 각각 표시하였습니다.

기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 아닐 경우 별도의 비용 납부 후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학교 정직원 외에 임시 직원들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여직원에게도 개방) 원한다면 남자 직원들에게도
-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 취미교실 개설요인이 구해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참여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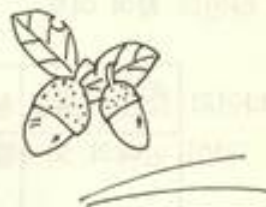
오호!! 30대에 적합한 운동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어언 10년 넘직한 나이대로 그동안 운동을 전혀 안했다면 체력은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하지만 30대는 평생 건강을 위해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벨리겔기와 조깅으로 시작하는 게 손쉬운 방법이다. 2개월간 하루 20분 정도씩 걷다가 40분 정도의 조깅으로 운동시간을 차츰 늘려 나가며 계단오르기나 에어로빅도 해볼만 하다. 몸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스트레칭 등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을 함께 해야 효과적이며, 특히 계단오르기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유연체조를 함께 해야 한다. 만약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50대는 57페이지로 가세요)

상황별 동화시리즈 하나

불평이 많을 때는 이런 얘기를 ...



호박과 도토리

어느 날, 한 농부가 밭에 나갔습니다. 밭에서 농부는 가느다란 줄기에 큰 호박이 열린 것을 보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느님은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하셨지? 이런 가는 줄기에 이렇게 큰 열매를 열리게 하시다니, 이것은 정말 큰 실수야. 내가 만일 하느님이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이 호박을 저기 있는 큰 참나무에 열리도록 하겠어. 큰 나무에 큰 열매, 이 얼마나 어울리는 일이야. 그런데도 이렇게 큰 열매를 저런 큰 나무에는 열리게 하지 않고, 겨우 저런 조그마한 도토리를 열리게 하시다니, 이건 정말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야." 농부는 불평을 하며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다음 날, 농부는 또 밭에 갔습니다. 간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농부는 졸음이 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참나무 그늘에 가서 낮잠을 잤습니다. 한참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도토리 한 개가 똑 떨어져, 농부의 코를 딱 때렸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뜨고 손으로 코를 어루만지다가 탁수염에서 도토리 한 개를 꺼냈습니다. "아이 코야, 이놈의 도토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코도 아프고, 하지만 도토리였기에 다행이지, 만일 저 큰 호박이 코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겠나. 아마 크게 다쳤을거야. 하느님이 하신 일은 정말 나무랄 수가 없어. 조금도 잘못된 게 없거든." 농부는 부시시 일어서더니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여러분, 평소에 괜히 투덜거리거나 작은 일에도 불평을 하진 않나요? 불평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된답니다. 불평을 하기 전에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은 자신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랍니다.

상황별 동화시리즈 두을

장난이 심할 때는 이런 얘기를....

어리석은 개구리

쥐와 개구리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난꾸러기 개구리는 쥐를 골려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끈을 가지고 쥐를 찾아갔습니다. 쥐는 개구리를 보자 물었습니다. "개구리아, 끈은 무엇에 쓸거니?" 개구리는 빙글빙글 웃으면서, "가만있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보여 줄게." 그리고는 끈으로 쥐의 발과 제 발을 묶었습니다. 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래?" "너와 나는 친한 친구가 아니냐? 그러니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어떤 일이라도 함께 하자는 것이지 뭐는 뭐야?" 그리고는 얼마쯤 있다가, "자, 우리 함께 놀러 갈까?" 하고는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끈에 발이 묶인 쥐도 따라갈 수밖에요. 이윽고 개구리와 쥐는 연못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갑자기 펄쩍 뛰어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 들어갔습니다. 개구리는 물 속을 기분 좋게 헤엄쳐 다녔습니다. 그러나 쥐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개구리가 하는 대로 끌려 다니며 물만 실컷 마셨습니다. 배가 풍선처럼 커진 쥐는 얼마 뒤에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마침 그때 하늘을 날고 있던 독수리 한 마리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앗, 맛있는 먹이가 있구나." 독수리는 손살같이 쥐를 낚아챘습니다. 쥐와 발이 한데 묶인 개구리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는 그냥 생각없이 장난으로 한 일인데,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었나요? 가벼운 장난은 친구사이를 더 좋게 만들어 주지만 지나치게 되면 우정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상황별 동화시리즈는 「이럴 땐 이런 얘기」 유창근 편저 <양서원>중에서 골라 실었습니다.

확실히 봄시다...

* 취미교실에서 배운 요리강좌 「샐러드와 샌드위치 만들기」입니다. 예언에게,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인이 되세요.....

1. 멕시코 샐러드

재료 : 양파, 오이, 치즈, 당근, 양상치, 적배추, 햄

(사과, 배를 넣으면 좋음)

- ① 양파, 양상치, 적배추, 햄, 치즈는 채썰고, 오이, 당근은 어슷썬다.
- ② 마요네즈를 넣는다. 적당히!!!
- ③ 입맛에 따라 설탕, 핫소스, 후추를 넣는다. 알아서!!!
- ④ 맛있게 먹는다.

2. 씨푸드 샐러드

재료 : 비린내 없이는 해물(관자, 굴뚜기, 새우등)과 피망(빨강, 파랑)

레몬, 브로콜리, 양송이

- ① 각종 재료는 물에 살짝 데친다.
- ② 새우, 관자, 굴뚜기등은 보기 좋게 자르고, 피망은 1cm 정도 정사각형으로 썬다.
- ③ 마요네즈를 넣는다. 적당히!!!
- ④ 양파, 후추, 설탕, 소금을 넣는다. 알아서!!!
- ⑤ 맛있게 먹는다.

3. 모듬 샌드위치 만들기

재료 : 식빵, 버터, 겨자, 오이, 당근, 양상치, 양파, 피클, 레몬, 햄, 치즈, 참치, 마요네즈

- ① 피클과 양파는 잘게 다지고, 오이와 당근은 어슷썬다.

참치는 기름기와 물기를 빼고 으갠다.

* 원래는 양파의 경우 소금에 절여서 물에 살짝 헹구어서 배보자기로 쥔다.

- ② ①에 양상치, 마요네즈, 겨자, 소금, 설탕 약간, 레몬(또는 화이트 와인), 후추(티스푼 1/5)를 넣고 섞는다.
 - ③ 얇게 썬 빵에 소스(마요네즈(30g) + 버터(100g) + 양겨자)를 빵 한쪽에 바르고 위 내용물과 치즈, 햄을 겹쳐 넣는다.
 - ④ 손님이 오셨을 땐 예쁘게 잘라서, 혼자 먹을 땐 대충 잘라서 맛나게 먹는다.
- * 소풍이나 낚시를 갈 때는 당근, 양파, 오이를 소금에 절인 후 쓴다.
(because :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4. 싸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

재료 : 양파, 피클, 삶은 계란, 레몬(또는 화이트 와인),

후추(티스푼 1/3), 핫소스(티스푼 1), 토마토케첩(밥스푼 3),

마요네즈(밥스푼 5), 피클국물 약간

- ① 양파, 피클, 계란은 잘게 다진다.
- ② 위 재료를 용량 넣고 피클국물로 농도를 맞춰가며 한 방향으로 젓는다.
(어리저리 휘저으면 나중에 재료가 따로 난다).
- ③ 용도에 맞춰 맛있게 먹는다.(ex : 야채를 찍어 먹든가, 빵에 발라 먹든가, 비위가 좋은 사람은 밥을 비벼 먹어도 됨)



•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교양강좌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성은 왜 일을 하는가

전 여 옥 (리마주 프로덕션 대표)

오늘날 우리 나라의 직업여성은 주부, 아내, 어머니로서의 3인 1역을 동시에 해내며 정말 힘들게 직장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성은 직장 생활 가운데서 우선 수적인 열세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차별로 인한 좌절과 시련 또한 만만치 않게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여성들은 직업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성취해 나가며 보람과 긍지를 맛보는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일하는 즐거움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입증하고 다양하고 폭 넓은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자신을 키우면서 당당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일을 함으로써 가정경제 뿐 아니라 사회에 큰 공헌을 하게 됨은 물론 사회 활동을 함으로서 비롯되는 가사 및 육아의 부담을 다른 여성의 일손을 빌림으로써 또 한사람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출세한 여성들이 직업과 가사를 둘 다 잘 해내는 슈퍼우먼인 것처럼 매스컴을 통해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을 둘 다 충실히 관리해 나가는 것은 다른 이의 돕는 손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여성의 가사노동을 덜어주는 다양한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직업여성의 가사분담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하는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 여성들에게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정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미래를 열어 나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직장내에서도 작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조직 전체의 큰흐름을 보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좌절과 시련을 딛고 21세기에 그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한 단계씩 자신의 실력을 다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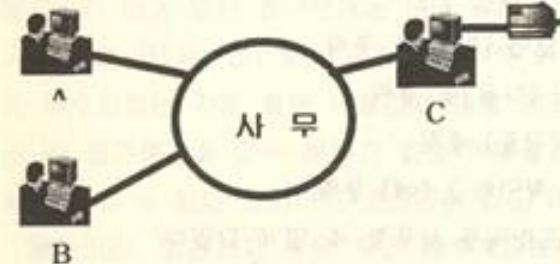
21세기를 바라보며,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꿈과 자유, 성취와 긍지,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사회의 행복이 일하는 나를 통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시다!

컴퓨터를 배웁시다

사무실에서의 전산자원 공유 (프린터 공유편)

조 수 정 (정보통신처)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는 초고속 정보망을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정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의 공간에서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연세대학교의 정보 기반구축을 도모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산 자원 공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내가 있는 사무실에서의 프린터 공유 환경을 구성하여 보기로 하겠다. 옆의 그림과 같은 사례를 들어 사무실

프린터를 공유하여 보기로 하자. (단, 사무실내의 모든 컴퓨터는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컴퓨터 A의 사용자는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컴퓨터 C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쓰고자 한다." 이때 컴퓨터 A에서 바로 사용자는 컴퓨터 C의 프린터를 이용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 공유환경을 구성해 보자.

1. 우선 컴퓨터 C의 프린터를 공유시켜야 한다.

- ① 컴퓨터 C의 Win95에서 (시작) -> (설정) -> (프린터)를 클릭
- ② 프린터 창이 뜨면 해당 프린터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 ③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
- ④ (공유) 선택 -> 공유패널에서 (공유)선택
- ⑤ 공유이름을 임의로 입력(여기서는 LPUV라고 하자.) -> (확인) 클릭
- ⑥ 잠시 후 해당 프린터 아이콘 밑에 손으로 받치고 있는 모양이 나타남.
- ⑦ 이제 컴퓨터 C에 연결된 프린터는 LPUV라는 이름으로 공유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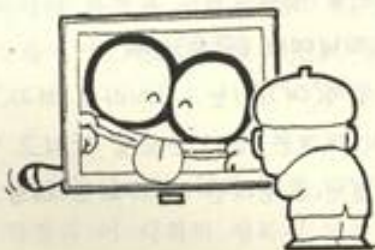
2. 컴퓨터 A에서 공유된 컴퓨터 C의 LPUV 프린터를 네트워크 프린터로 등록한

다.

- ① 컴퓨터 A의 Win95 (시작) -> (설정) -> (프린터)를 클릭
- ② 프린터 창이 뜨면 (프린터 추가)를 더블클릭
- ③ 프린터 추가 마법사 창이 뜨면 (다음)을 클릭
- ④ 핸드시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
- ⑤ (네트워크 경로..)란 아래에 (찾아보기)를 클릭
- ⑥ 네트워크 환경에서 컴퓨터 C를 찾아
- ⑦ 컴퓨터 C 앞에 있는 를 클릭 하면 공유되어 있는 LPUV 프린터가 보인다.
- ⑧ 이 프린터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
- ⑨ 프린터 추가 마법사 창으로 돌아오면 (다음)을 클릭
- ⑩ (기본제어기 보장) 선택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
- ⑪ (시험인쇄)에서 "예"를 선택하고 (완료) 클릭
- ⑫ (시험인쇄)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예) 클릭
- ⑬ 이제 컴퓨터 A에서 컴퓨터 C의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컴퓨터 A의 한글에서 컴퓨터 C의 프린터로 출력하기

- ① 출력을 원하는 문서를 띄운 후
- ② (파일)메뉴의 (프린터 설정)을 선택
- ③ (프린터 드라이버 종류)에서 LPUV를 선택 -> (설정) 클릭
- ④ 인쇄 시행!



눈이 와도 좋고, 비가 와도 좋다.. 연인과 함께라면.....

[강화]갈매기와 함께 가는 뱃길-석모도

서울에서 가장 손쉽게 오갈 수 있고 하루 이틀 정도를 아낌없이 소모할만한 가치가 있는 여행지 한 곳을 꼽으라면 석모도가 우선 대상이 아닐까 싶다.

강화도는 이제 섬이라 할 만한 정취를 어느 구석에서도 찾을 수 없지만, 석모도는 아직 섬의 정취를 구석구석에서 흠뻑 느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섬을 찾아가면서 잠시나마 타게 되는 철부지에는 내내 갈매기가 따라 다니는 것도 여행의 재미와 둘 만이 몰래 떠나는 데이트의 짜릿함을 한껏 더해준다.

또 석모도에는 작은 섬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 보문사라는 절이 있고, 가는 길 중간중간에 아주 분위기 있는 카페들과 러브숙소들이 늘어서 있어 언제든지 쉬었다 갈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라는 점도 매력요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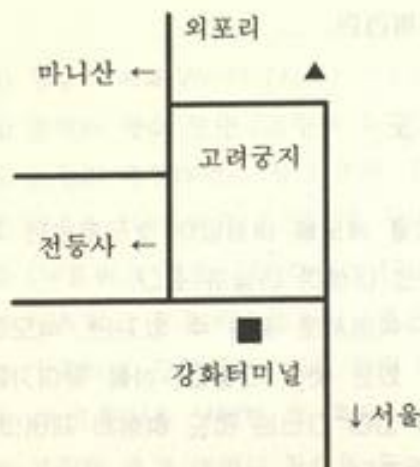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작은 해수욕장에서 서해의 일출 장관을 보고 살그락대며 물이 빠지고 드는 소리를 들으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민박집들이 해변가에 있기도 하다.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이면 석모도로 떠나는 외포리 향이 항상 사람들로 만원이다. 그러나 시간을 쪼개 평일에 떠나본다면 아주 한적하면서도 분위기 만점인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석모도 여행에서 가장 멋진 장관은 보문사 뒷산 중턱에 있는 눈썹바위 미륵불처사 앞에서 내려다 보는 서해바다, 마치 남해 다도해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 석모도(외포리) 가는 길

▷승용차 편

김포를 거쳐 강화대교를 건너게 되면 곧바로 이르게 되는 강화시외버스 터미널 입구 삼거리에서 좌회전해 시외버스 터미널 앞을 가로질러 직진한다. 천우물 휴게소를 지나 곧바로 나타나는 삼거리에서는 전동사쪽을 버리고 보문사/마니산관광지 쪽으로 우회전해서 보문사 이정표만 보고 직진하면 외포리에 이르게 된다.



▷ 대중교통

신촌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외포리행버스가 매시 정각에 출발한다. 아침 10시에 있는 외포리행 버스를 이용하면 하루 일정으로 아주 적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요금은 3,400원.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만약 외포리까지의 직행버스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10분마다 출발하는 강화행 버스를 타고 강화터미널에서 다시 외포리행 시내버스를 갈아타도 된다.

◎ 숙박

보문사 앞과 보문사 가는 길 중간중간에 민박집들이 늘어 서 있다. 그리고 민머루 해수욕장에도 통나무로 지어진 아주 좋은 민박집이 있다.

▷ 주요 연락처 (032-)

한가라지농원 933-7711 (보문사)	산과바다민박 932-3814 (보문사)
촌사랑 민박 932-3137 (보문사)	달과 사랑 933-6257 (민머루)
통나무집 932-9410 (민머루)	돌캐식당 932-3229 (석포항)

◎ 별난 먹거리

석모도와 외포리에서는 뽕이 회가 아주 유명하고, 또 항구주변에 준비한 횡집

돌마다 뽕이회를 간판삼아 내걸고 있다.

특히 외포리에 있는 전망대 횡집은 회맛 뿐만아니라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분위기가 만점인 곳이다.

전망대 횡집 (032-937-6540)

[강화]석모도, 4대 관음기도처-보문사

석모도 여행의 목적중 8할은 보문사 탐방에 있다. 낙가산 서쪽 기슭에 소담스럽게 안겨 있는 보문사는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처중 하나로 이름이 높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다는 자연석실불당에는 바다에서 건져올린 부처를 모셨다고 해서 불교인들의 발길이 잦다... 또 석실불당 바로 앞에 있는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3일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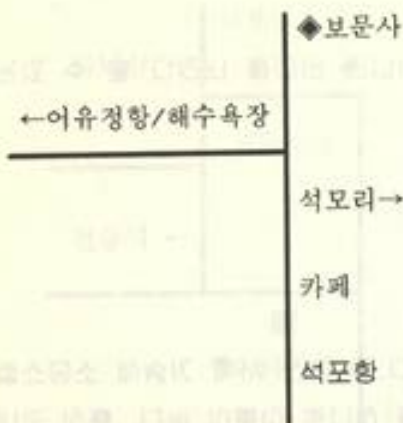
보문사의 가장 큰 볼거리는 역시 보문사 뒤 낙가산 중턱에 높다랗게 자리잡고 있는 눈썹바위와 바위벽에 10미터의 높이로 조각되어 있는 마애불상. 예까지 갈려면 보문사 대웅전 옆으로 32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데, 어떻게든 올라가고 나면 마애불상이 특유의 미소를 머금고 힘들게 찾아온 향배객들을 위로해주고 아래로 굽어보이는 서해의 모습이 흡사 다도해국립공원중의 어느 한 곳인 양 절경을 자랑한다.

보문사 탐방을 마치고선 바로 앞에 펼쳐진 갯벌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져 보는 것도 여행의 재미를 더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 드라이브 코스

강화읍에서 차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외포리 선착장에서 철부선을 타고 갈매기 떼에 휩싸여 10분을 건너면 석모도 석포리 부두에 닿게 된다. 부두를 빠져나오면 곧바로 두갈래로 길이 갈라지는데, 어느 쪽으로 가든 섬을 한바퀴 돌아 원래의 출발점인 부두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민박이 몰려있는 민머루 해수욕장과 보문사를 가기 위해서는 우측길을 버리고 직진에 가까운 왼쪽 길을 따라가면 된다.



◎ 대중교통편

석포리 항구에서 보문사까지 왕복운행하는 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그러나 정확한 시각보다는 배가 도착하는 시각에 맞추어 수시 운행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 숙박

보문사 입구에 산과바다, 촌사람 등의 민박집들이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석포리에서 보문사로 가는 길 중간중간에 민박촌이 조성되어 있어 숙박의 어려움은 없다.

주요 숙박업소 연락처(032-)

촌사람 932-3137 참나무숲민박 932-3648 석포민박 932-3819
보문장여관 932-3800 논밭바위 932-3639

◎ 별난 먹거리

석모도에서는 어느 식당에서나 인삼약걸리를 내놓는다.

한 학기 이렇게 보냈습니다

1. 1998년 2학기 첫 번째 등산모임은 1998년 9월 12일(토) 12시 30분에 학교를 출발하여 북한산 구기동 코스(구기터널위-향로봉-비봉-송가봉-구기매표소)를 다녀왔습니다. (회원 9명, 비회원 9명 참가)
2. 1998학년도 제2학기 취미교실이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구 분	강 사 명	날 짜	장 소	참석인원
과일썰기	신동훈주방장(연세프라자)	1998. 9. 17(목)	연세프라자	49명
샐러드	상 동	1998. 9. 28(월)	상 동	45명
샌드위치	상 동	1998. 9. 29(화)	상 동	42명
수지침	신가영부장(다살이살판)	1998.9.15(화)부터 10회(현재 진행중)	노동조합 회의실	15명내외

3. 1998년 2학기 첫 번째 교양강좌가 10월 13일(화) 12시에 상대 201호(최고경제과 정 강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마광수 교수님(국문과)께서 “카타르시스와 정신건강”에 대해 특강을 해 주셨고, 회원 41명, 비회원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 이번 학기 두 번째 등산모임은 1998년 11월 7일(토) 12시 50분에 학교를 출발하여 북한산 평창동 코스(형제매표소-보현봉-대남문-대성문-제 2매표소)를 다녀왔습니다. (회원 7명, 비회원 7명 참가)
5. 이번 학기 두 번째 교양강좌는 1998년 11월 13일(금) 12시에 상대 201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여옥사장(리마주 대표이사, 전 KBS앵커)께서 “여성은 왜 일을 하는가?”란 제목으로 특강을 해 주셨으며, 회원 51명, 비회원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축하합니다

결혼 10월 24일(토) 최명수(장학복지과) 선생

결혼 11월 1일(일) 이미향(언어연구교육원) 선생

결혼 11월 28일(토) 이경미(중앙도서관) 선생

결혼 예정 1999년 1월 16일(토) 11시 동문회관 양현미(재무처) 선생

예쁜 아가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6월 17일(수) 입학관리처 백영숙 선생 득남

6월 17일(수) 법과대학 양현주 선생 득녀

7월 7일(화) 기획실 이예리 선생 득녀

8월 10일(월) 음악대학 이영미 선생 득녀

8월 17일(월) 법무대학원 이은정 선생 득녀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퇴직 8월 28일(금) 이명호 선생

승진을 축하합니다

성명	현근무처 및 직위	이동근무처 및 승진직위
김순옥	여학생처 주임	생활관 과장
최수영	사회교육원 주임대우	여학생처 주임
박금분	중앙도서관 열람과 참고계 주임대우	중앙도서관 사서과 수서계 주임

- 이상 3 명 -

< 이 동 >

성명 현근무처 및 직위 이동근무처 및 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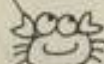
이화용	교무처 학적과 제1학적계	대학원 사무과 문서계
송인전	교무처 학적과 증명계	재무처 구매과 구매계
박정란	교무처 학적과 증명계	음악대학
차명숙	재무처 구매과 구매계	교무처 학적과 제1학적계
정명숙	정보통신처 교육지원계	교무처 학적과 제1학적계
이미자	사회과학대학	사회교육원
황명상	음악대학	교무처 학적과 증명계
조순희	대학원 사무과 문서계	사회과학대학
전민희	중앙도서관 전산개발계	정보통신처 시스템운영계
홍은주	박물관 보존정리계	입학관리처 자료개발계
박선희	예비군연대	동서문제연구원 문서계

- 이상 11 명 -

으흠 50대에 적합한 운동

경쟁심을 유발하는 운동시합은 절대 피해야 할 시기로 자신도 모르게 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땀을 많이 흘릴 정도로 격렬한 운동은 인체의 면역계나 노화에 오히려 역효과를 준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러닝머신이나 자전거타기 등 강도가 일정한 운동이 좋다.

러닝머신은 시속 5km정도, 고정식 자전거는 50-60rpm 정도의 느린 속도로 하루 30분정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 그 어느 해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되어 집니다. 이제 서서히 199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송년모임을 아들과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2월 4일(금) 12시 장소 : 광천관 제 1회의실

○ 연말 이웃돕기를 위한 재향유족을 아들과 같이 모아서 우리 문화교회를 통하여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정성어린 도움을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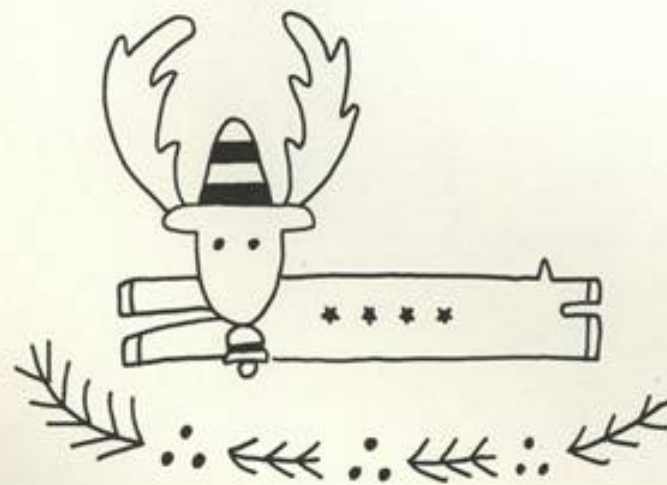
수집기간 : 1998년 12월 7일(월) - 11일(금) (5일간)

수집물품 : 우리 이웃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옷가지들 비롯한 기탁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

제출할 곳 : 스승 윤영취원

○ 원광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좋은 기억들을 많이 스승 윤영취원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23호를 만들었습니다. 더욱 밝아진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원광」을 더욱 더 밝게 만들어주십시오. 많은 정성어린 「원광」이 있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아들과 같이 도움을 주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사회과학대학 조순희(☎ 2933) * 법과대학 양현희(☎ 2988)
- * 중앙도서관 이용민(☎ 3326) * 법과대학원 이은정(☎ 3804)
- * 중앙도서관 김애숙(☎ 3319)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